

GANGNEUNG INTERNATIONAL ART FESTIVAL 2025

제3회 강릉국제 아트페스티벌

오에
치치
자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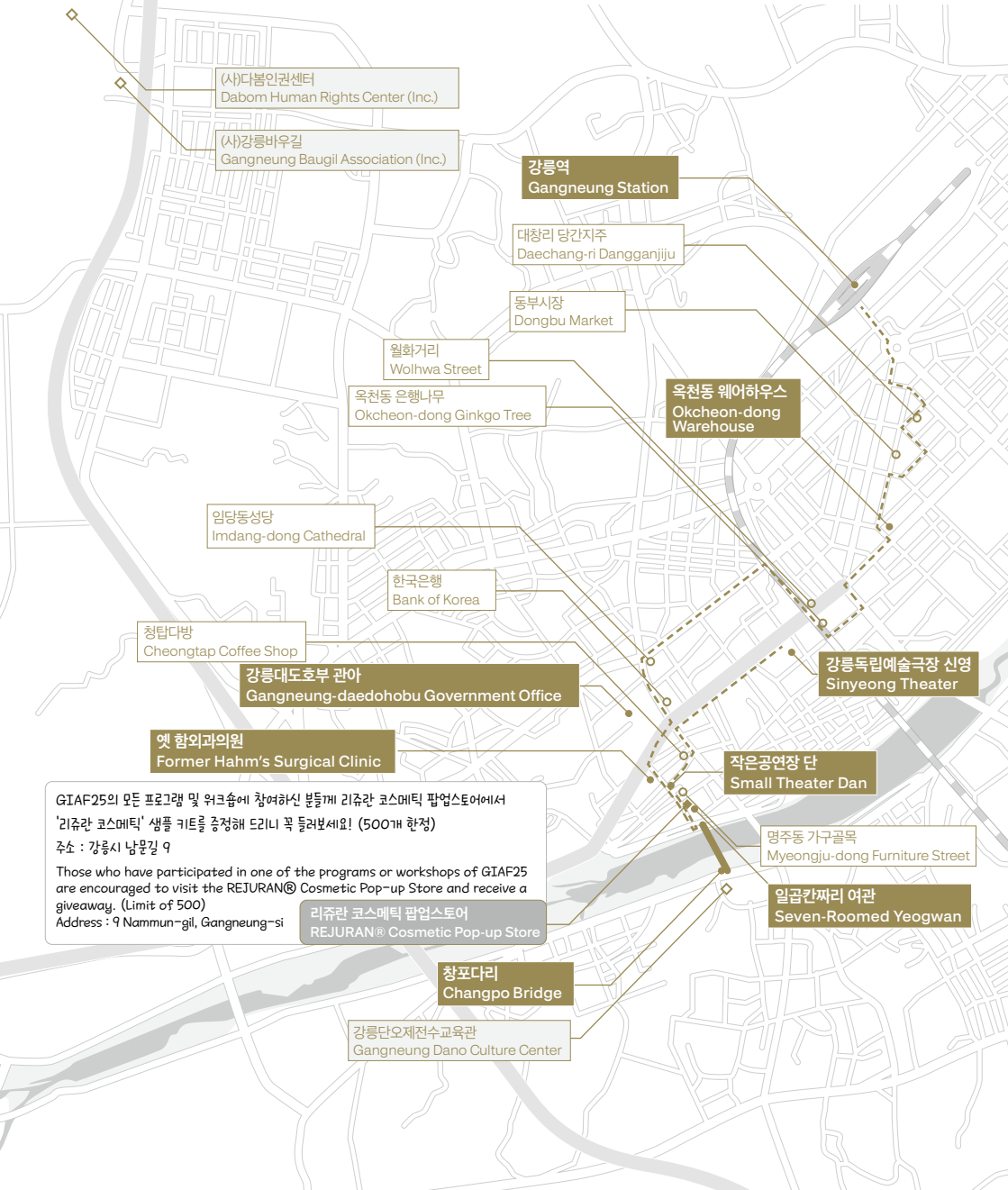
가이드북
GUIDE BOOK

25. 3. 14
— 4. 20



* 이 지도에는 제3회 강릉국제아트페스티벌(GIAF25) 장소를 비롯하여 시티도슨트 & 시티가이드 루트, 협력 기관 및 단체, 그리고 후원사인 (주)파마리서치에서 운영하는 리쥬란 코스메틱 팝업스토어 위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 This map pinpoints the exhibition venues of the Gangneung International Art Festival 2025 (GIAF25), the City Docent & City Guide route, the locations of GIAP25 partners, and the REJURAN® Cosmetic Pop-up Store run by PharmaResearch Co., Ltd., the sponsor of GIAF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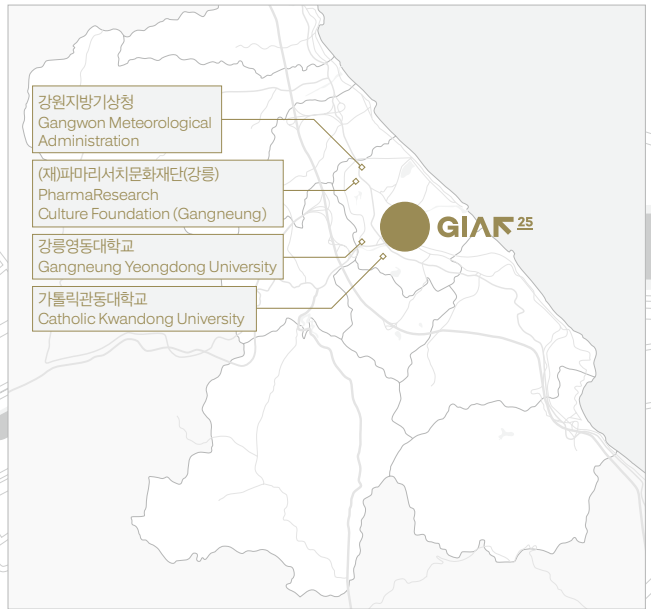
GIAF25의 모든 프로그램 및 워크숍에 참여하신 분들께 리쥬란 코스메틱 팝업스토어에서 '리쥬란 코스메틱' 샘플 키트를 증정해 드리니 꼭 둘러보세요! (500개 한정)

주소 : 강릉시 남문길 9

Those who have participated in one of the programs or workshops of GIAF25 are encouraged to visit the REJURAN® Cosmetic Pop-up Store and receive a giveaway. (Limit of 500)

Address : 9 Nammun-gil, Gangneung-si

리쥬란 코스메틱 팝업스토어
REJURAN® Cosmetic Pop-up Store



가이드북 설명

페스티벌마다 발간하는 가이드북은 전시장소를 포함한 지도와 함께 전시 취지와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소책자입니다. 단순히 정보만을 나열하는 안내서가 아닌, 기획 과정부터 현재, 미래 담론까지 포괄해 관람객의 이해를 돕는 전시 지침서입니다.

Guidebook Description

The festival guidebook, provided to visitors prior to their visit to the exhibitions, serves as both a navigational tool and an informative resource. It includes a map to all festival venues along with details about the themes and featured contents. Additionally, the guidebook also reflects the journey of planning the exhibition, the current festival experience, and the vision for its future.

강릉국제아트페스티벌(GIAF)은 예술과 사람들의 삶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경험을 선사하기 위해 기획된 페스티벌입니다. 민간 문화재단이 주최하며, 2022년 첫발을 내디딘 이래 강릉 지역의 고유한 이야기를 발굴하고, 특별한 장소를 선정해 예술의 장으로 활용하며, 국내외 작가들을 초청해 다채로운 전시와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열린 페스티벌을 목표로, 강릉의 문화적 정체성을 알리고자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The Gangneung International Art Festival (GIAF) is a biannual art festival hosted by a private corporate cultural foundation in Korea. It is designed to create experiences where people's lives and art intertwine. Starting in 2022, the festival aims to delve into the unique stories of the Gangneung area, choose meaningful places as venues, and invite artists from Korea and abroad. It strives to evolve into an art festival that everyone can enjoy through various exhibitions and programs.

G

Gangneung

강릉은 예로부터 문향과 예향의 고장으로, 풍부한 놀이 문화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Gangneung has long been the home of literature and arts, and it possesses rich cultures in amusement.

I

International

현대미술의 국제적인 경향을 반영해, 한반도의 출입구를 열고 태평양을 바라보는 지리적 이점을 갖춘 도시 강릉을 다각도로 탐구하고 해석합니다.

At Gangneung, we open the entrance to the Korean Peninsula and look out toward the vast Pacific Ocean, as we explore and interpret Gangneung from various angles while reflecting the international trends of contemporary art.

A

Art

국내의 현대미술 작가들이 참여하는 페스티벌은 도시 공간을 가로질러 선보이며, 강릉 전역을 예술로 물들입니다.

This festival, joined by domestic and foreign contemporary artists, will be held throughout the urban area from the heart of Gangneung.

F

Festival

강릉의 특정 공간을 활용한 작품 설치, 지역 커뮤니티 연계, 다양한 협력 프로젝트로 다채로운 예술 축제를 만들어 갑니다.

A colorful art festival will be created by linking various cooperative projects and the local community, rather than simply installing artwork in a specific area.

제3회 강릉국제아트페스티벌(GIAF25)

페스티벌 명	에시자, 오시자
페스티벌 기간	2025년 3월 14일(금) - 4월 20일(일), 총 38일
페스티벌 장소	강릉역, 옥천동 웨어하우스, 강릉대도호부 관아, 옛 함외과의원, 창포다리, 일곱칸짜리 여관, 작은공연장 단, 강릉독립예술극장 신영
참여 작가	김재현, 서다숨, 안민옥, 윤석남, 이양희, 이해민선, 정연두, 키와림, 호추니엔, 홍이현숙, 흐라이르 사르키시안
프로그램	시티도슨트 & 시티가이드, 어린이 도슨트, 다국어 도슨트, 강연
퍼포먼스	이양희
작가 워크숍	서다숨, 키와림, 이양희
주최·주관	(재)파마리서치문화재단

Gangneung International Art Festival 2025(GIAF25)

Festival Title	<i>Esiza, Osiza</i>
Festival Period	Friday, March 14 – Sunday, April 20, 2025, For 38 days
Festival Venues	Gangneung Station, Okcheon-dong Warehouse, Gangneung-daedohobu Government Office, Former Hahm's Surgical Clinic, Changpo Bridge, Seven-Roomed Yeogwan, Small Theater Dan, Sinyeong Theater
Artists	KIM JAE HYEON, SUH Dasom, Minok AN, YUN Suknam, Yanghee Lee, Leehaiminsun, Jung Yeondoo, Kiwalim, Ho Tzu Nyen, Hong Lee Hyunsook, Hrair Sarkissian
Programs	City Docent & City Guide, Children's Docent, Multilingual Docent, Lecture
Performance	Yanghee Lee
Artist Workshops	SUH Dasom, Kiwalim, and Yanghee Lee
Hosted/Organized by	PharmaResearch Culture Foundation

목차

- 4 강릉국제아트페스티벌
- 8 기획의 글
- 12 오시는 길(대중교통 및 자가용)
- 14 운영 시간 및 관람 안내(셔틀버스 운행 정보)
- 16 시티도슨트 & 시티가이드 프로그램
- 19 강원지방기상청과 함께하는 어린이 도슨트 프로그램
- 20 강연 프로그램
- 21 다봄인권센터와 함께하는 다국어 도슨트 프로그램
- 22 강릉바우길과 강릉 걷기
- 23 서다솜 워크숍
- 24 키와림 워크숍
- 25 이양희 퍼포먼스, 워크숍
- 26 페스티벌 장소 및 참여작가
- 28 강릉역 | 김재현
- 30 옥천동 웨어하우스 | 정연두
- 32 강릉대도호부 관아 | 윤석남, 홍이현숙, 흐라이르 사르키시안, 안민옥
- 37 옛 함외과의원 | 이해민선, 키와림
- 40 창포다리 | 김재현
- 42 일곱칸짜리 여관 | 서다솜
- 44 작은공연장 단 | 이양희
- 46 강릉독립예술극장 신영 | 호추니엔
- 48 강릉국제아트페스티벌 공모 프로그램
- 49 파마리서치문화재단
- 50 발행정보

Contents

4	Gangneung International Art Festival
10	Director's Note
13	Directions (Public Transportation & Car)
14	Visitors Information (Shuttle Bus Service)
16	City Docent & City Guide Program
19	Children's Docent Program in Collaboration with the Gangwon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20	Lecture Program
21	Multilingual Docent Program in Collaboration with Dabom Human Rights Center
22	Walk with Gangneung Baugil
23	SUH Dasom's Workshop
24	Kiwalim's Workshop
25	Yanghee Lee's Performance, Workshop
26	Festival Venues and Participating Artists for GIAF25
28	Gangneung Station KIM JAE HYEON
30	Okcheon-dong Warehouse Jung Yeondoo
32	Gangneung-daedohobu Government Office YUN Suknam, Hong Lee Hyunsook, Hrair Sarkissian, Minok AN
37	Former Hahm's Surgical Clinic Leehaiminsun, Kiwalim
40	Changpo Bridge KIM JAE HYEON
42	Seven-Roomed Yeogwan SUH Dasom
44	Small Theater Dan Yanghee Lee
46	Sinyeong Theater Ho Tzu Nyen
48	The Open Call of the Gangneung International Art Festival
49	PharmaResearch Culture Foundation
50	Credit

음력 사월 보름에 국사서낭신을 모시고 내려오면서 부르는 소리가 영산홍이야.

“이히야, 에헤.

에헤야 에디야

얼싸 지화자 영산홍.”¹

바람 소리와 같이 싸아하는 소리가 나면서 집채 같은 호랑기가 나타나더래 그러더니

그 처녀를 들쳐업고 갔대. 이래 딸이 없어졌단 말이야.²

“강원도는 바닷가에 있는 9군이 단대령(홀로 높은 고개) 동쪽에 있기 때문에 영동이라 한다.

단대령은 대관령이라고도 하기 때문에 강원도를 관동이라고도 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역사 속 대관령은 백두산 이남으로 가장 높은 고개였다는 것이다.³

안축(安軸)의 기문에, “먼 데 있는 물을 창해가 넓고 크며, 먼 데 있는 산은 골짜기 천 겹이다.” 하였다.⁴

대관령(大關嶺) 부 서쪽 45리에 있으며, 이 주(州)의 진산이다. 여진(女眞) 지역인 장백산(長白山)에서 산맥이 구불구불

비틀비틀, 남쪽으로 뻗어 내리면서 동해 바닷가를 차지한 것이 몇 곳인지 모르나, 이 영(嶺)이 가장 높다.⁵

파마리서치문화재단은 강릉국제아트페스티벌의 세 번째 이야기 《에시자, 오시자》를 개최합니다. 첫 번째 페스티벌은 삶의 터전이자 감각으로서의 강릉을 기존과는 다른 시선으로 탐색하며, 지형학적 위치를 경험과 기억의 축으로 확장한 새로운 지도를 그려내는 방식으로 기획되었습니다. 두 번째 페스티벌에서는 1913년 강릉김씨 부인의 여정을 기록한 오래된 기행문⁶「서유록」을 따라, 신체의 이동이 불러온 물리적·정신적 영향을 조명하며 이동의 의미를 다각적으로 탐구했습니다. 이번 제3회 강릉국제아트페스티벌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대관령을 핵심 요소로 삼아 새로운 접근을 시도합니다. 지난 회가 대관령 옛길을 걷는 여정자의 이야기에 초점을 맞췄다면, 올해는 대관령을 넘나드는 인간 이외의 다양한 존재들에 주목합니다. 바람과 구름, 옛이야기와 기억에 새겨진 풍경들, 산새와 들짐승, 이끼와 야생화, 보이지 않는 미생물, 스치는 눈발과 바람결에 실려오는 먼지, 대지를 어루만지는 그림자와 별빛, 그리고 그곳에서 탄생한 신화와 전설, 설화 등을 걸음의 주체로 전환하며, 축적과 시간을 달리해 대관령을 둘러싼 새로운 관점을 탐구하고자 합니다.

대관령의 지표면 가까이에서 마주치는 세밀한 풍경부터 령을 넘으며 펼쳐지는 광활한 전경까지, 그 사이에서 탄생한 수많은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새로운 감각적 경험을 선사합니다. 이는 우리가 오래전부터 이 존재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왔는지, 그리고 현재는 어떻게 그 관계를 지속하고 있는지를 성찰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대관령의 바람과 그곳을 지켜온 신성한 존재들, 그리고 노래하며 살아온

인간의 이야기”는 천 년 전에도⁸, 지금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존재들은 대관령의 장소적, 정서적 상징성을 다시금 선명히 드러냅니다.

우리는 여전히 대관령의 깊은 골짜기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통해 멀리 떨어진 그곳의 크기와 경계를 상상하며, 그 상상 속에서 령을 넘어온 바람과 인간의 관계를 발견합니다. 과학기술의 비약적 발전과 빠른 속도가 지배하는 오늘날에도, 대관령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때로 산불 같은 재난을 초래합니다. 그러나 이곳에 뿌리를 내린 사람들은 단오제라는 축제를 통해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삶의 지속성을 만들어갑니다. 이는 자연이 인간의 예측과 통제를 넘어서는 거대한 존재이고 우리는 자연과 결코 분리될 수 없음을 일깨워줍니다.

올해 강릉국제아트페스티벌은 대관령의 깊은 주름을 넘어 또 다른 소통의 가능성으로 나아가는 여정을 제안합니다. 대관령을 넘어 불어오는 보이지 않는 바람을 느끼며, 그 지형이 빚어낸 안팎의 깊고 풍성한 이야기를 함께 발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1 두창구, 『한국 강릉지역의 설화』(국학자료원, 1999) 「74. 국사 서낭신과 강릉 단오제」 중, 241.

2 두창구, 『한국 강릉지역의 설화』(국학자료원, 1999) 「41. 대관령 여서낭신」 중, 173.

3 이금익 『언러설기술』(국역), 이금익 지음, 민족문화추진회 옮김, 민족문화추진회(1967년)

4 『신증동국여지승람』 조선 성종 때 지리서

5 성현(成僎), 『속동문선』(1518) 제5권 중 「칠언고시(七言古詩)」, 「등 경포대(登鏡浦臺)」

6 『서유록』은 제2회 강릉국제아트페스티벌 제목이자 1913년 강릉 김씨가 서쪽으로 다녀온 여행을 기록한 기행문으로 2021년 서울문화유산에 등재 되었다.

7 언어 연구자 미국 캘리포니아대학 교수 존 nils(J.Niles)은 그의 저서에서 “인간은 이야기하려는 본능이 있고, 이야기를 통해 사회를 이해하는 존재이다”라고 말하면서, 인간을 ‘호모 나랜스(Homo Narrans, 이야기하는 인간)’라고 규정했다. 인간은 원래 이야기하고 싶고, 듣고 싶어 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Niles 2010). Niles, John D., 2010, Homo Narrans: The Poetics and Anthropology of Oral Literature,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8 고려사 열전에는 935년(태조 18년) 강릉 출신 왕순식이 왕건을 도와 신검을 토벌하려 갈 때 대관령에서 제사를 지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1603년(선조 36년) 허균이 남긴 『성소부부고』에서 강릉사람들이 5월 초하룻날 대령신을 맞이하여 명주(현 강릉)부사에 모신다고 기록했다. 조선시대의 학자 남효온은 『추강선생문집』이라는 자신의 책에서 강릉에는 매년 봄에 대관령산신제를 지내고 휴식을 취하며 놀았다는 기록을 남겼다. 강릉의 역사책인 『임영지』에는 더 자세한 기록이 있는데, “매년 4월 보름이면 강릉관아의 관리들이 무당들과 대관령에 올라가 제사하고 신목을 베어 모시고 마을로 내려온 후, 단오가 되면 무당패가 굿을 한다.” 고 했는데, 그 내용이 오늘날의 단오제 풍경과 비슷하게 쓰여 있다.

Yeongsanhong (Royal azalea), the chant sung while descending with the Guksa Seonangsin on the 15th of the fourth lunar month.

"Ihiya, ehe.

Eheya ediya

Eolssa jihwaja yeongsanhong."¹

As the sound of sweeping wind roared, a tiger as large as a house appeared and took the maiden, carrying her on its back. That is how the daughter went missing."²

Historical records state "As Gangwon-do has nine districts (*guns*) located east of Dandaeryeong—a solitary, towering hill—it is called *Yeongdong*, meaning 'east of Yeong.' Dandaeryeong is also known as *Daegwallyeong*, and thus, Gangwon-do is sometimes referred to as *Gwandong*, meaning 'east of Gwan.'

Historically, *Daegwallyeong* Pass has been recognized as the highest hill south of *Baekdusan Mountain*."³

A written statement by AN Chuk describes, "The blue sea stretches far into the distance, vast and boundless while the valleys layer upon one another a thousandfold as the mountains recede far away."⁴

Although it is uncertain how many mountain ranges from Yeojin region of Jabgbaeksan Mountain wind and twist their way southward, extending down to the coasts of the East Sea, this is the tallest."⁵

The PharmaResearch Culture Foundation proudly presents "*Esiza, Osiza*," the third chapter of the Gangneung International Art Festival. For the first GIAF, we aimed to present Gangneung through a sensory experience, redefining the city's identity by mapping it through the lens of experience and memory. The second edition delved into the meaning of *path*, exploring the physical and abstract meaning of its existence. Inspired by *Seoyurok*⁶, a 1913 travel journal documenting the journey of Madam Kim of Gangneung, the festival explored the profound impacts that traveling has on our body and mind. The third Gangneung International Art Festival focuses on *Daegwallyeong* – a magnificent mountain pass that crosses Mount Taebaek, leading to Gangneung. While the previous festival told the story of a traveler's journey through its ancient paths, this year's edition explores non-human elements that roam the highland's breathtaking landscape. The restless wind and drifting clouds that breathe life into the green pastures of spring, the untamed animals and soaring birds that rule the meadows and claim the summer sky, the endless expanse of snow that blankets the earth in winter like a quilt of shimmering silver, and the ancient myths and legends woven into the very soul of this land—whispered through time, carried by the wind. By focusing on these natural and mythical elements, the festival invites you to explore *Daegwallyeong* from a fresh perspective, revealing its beauty in ways you have never seen before.

From the intricate details of *Daegwallyeong*'s landscapes at your feet to the sweeping vistas from the mountain pass, every step unveils a story waiting to be heard. These stories urge us to pause—to reflect on our bond with this land, the ancient threads that tie us to it, and the ways we continue to keep them alive. For millennia⁷, voices have risen in song, honoring the sacred spirits of *Daegwallyeong*, their melodies carried through generations⁸ like whispers on the wind. Even now, these songs echo across time, a testament to the land's deep emotional and geological significance.

Only when we let our imagination drift with the restless winds of Daegwallyeong's deep valleys we begin to grasp its vastness, its ever-shifting edges, and the way it weaves through human existence. In a world hurtling forward with relentless speed—driven by technological breakthroughs and an unceasing pulse—this same wind carries both renewal and ruin, much like the wildfires that occasionally sweep across these lands. Yet, for those who have long called this place home, harmony with nature is not a choice but a way of life, embodied in traditions like the Danoje Festival. It serves as a powerful reminder: nature is boundless, unpredictable, beyond control—yet inextricably tied to us.

This year, the Gangneung International Art Festival invites you on a journey beyond the rugged folds of Daegwallyeong Pass, where the unseen wind moves like a silent messenger, carrying echoes of stories waiting to be uncovered, voices waiting to be heard.

- 1 Du Chang-gu, *Folklore of the Gangneung Area* (Kookhak, 1999), 241.
- 2 Du Chang-gu, *Folklore of the Gangneung Area* (Kookhak, 1999), 173.
- 3 Yi Geung-ik, *Yölyösil kisel*, trans. by the National Culture Promotion Association (National Culture Promotion Association, 1967).
- 4 *Sinjeung Dongguk Yeoji Seungnam* (新增東國輿地勝覽, Revised and expanded edition of Survey of the Geography of Joseon), a geographical text from the reign of King Seongjong of Joseon.
- 5 Seong Hyeon (成俔), *Sok Dongmunseon* (1518), Volume 5, "Seven-Character Ancient Poem (七言古詩)," "Climbing Gyeongpodae (登鏡浦臺).
- 6 "Seoyurok" is the title of the 2nd Gangneung International Art Festival and is a travelogue documenting the journey of the Gangneung Kim family to the west in 1913. It was registered as part of the Seoul Cultural Heritage in 2021.
- 7 The Goryeosa (History of Goryeo) records that in 935 (the 18th year of King Taejo), Wang Sun-sik, who was from Gangneung, conducted a ritual at Daegwallyeong when he accompanied Wang Geon to defeat Sin Gyeom. In 1603 (the 36th year of King Seonjo), Heo Gyun's Seongso Bubun Go (Book of the Sacred Ancestors) mentions that the people of Gangneung welcomed Daegwallyeong's deity on the first day of the 5th lunar month, and they gathered at the governor's office of the present Gangneung. The scholar Nam Hyo-on from the Joseon period left a record in his book Chugang Seonsaeng Munjip (Collected Works of Teacher Chugang) that the people of Gangneung performed the Daegwallyeong Mountain God ritual every spring, taking time to rest and celebrate. In the historical book Imyeonggi of Gangneung, a more detailed account is given: "Every year, on the 15th day of the 4th lunar month, the officials of the Gangneung Government Office, along with shamans, would climb Daegwallyeong, offer a ritual, bring down the sacred tree, and after descending to the village, a shaman group would perform the ritual on Dano (the 5th day of the 5th month)." This account closely resembles the modern-day Danoje (Dano Festival) ceremonies.
- 8 Language scholar Professor John Niles of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in his book, stated that "humans have an instinct to tell stories, and through stories, they understand society," defining humans as Homo Narrans (storytelling humans). The American literary scholar John Niles first used the term Homo Narrans in 1999, which is derived from Latin and means "the storytelling person." According to Niles, humans inherently have the instinct to want to speak and to listen (Niles, 2010). Niles, John D., *Homo Narrans: The Poetics and Anthropology of Oral Literature*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2010).

- 1 강릉역 강원도 강릉시 용지로 176
- 2 옥천동웨어하우스 강원도 강릉시 동부시장3길 2
강릉역 도보 924m(약 14분) 이동
강릉역건너편 정류장(정류장번호: 4200293)에서 112, 202, 233번 승차
한국자산관리공사 정류장 하차
- 3 강릉대도호부 관아 강원도 강릉시 임영로131번길 6
주차 홍제동 공영주차장(강릉시 명주로35번길 5)
강원 강릉시 명주동 14
강원 강릉시 남문동 138-1
강릉역 강릉역 버스 정류장(정류장번호: 4200721)에서 300, 302, 314번 승차
하나금융투자 하차
※ 강릉대도호부 관아, 옛 함외과의원, 창포다리, 일곱칸짜리 여관, 작은공연장 등은 모두 가까운 거리에 있어, 하나금융투자 정류장에서 하차하시거나 동일한 주차장을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 4 옛 함외과의원 강원도 강릉시 경강로2024번길 17
- 5 창포다리 강원도 강릉시 남문동 77-2
- 6 일곱칸짜리 여관 강원도 강릉시 경강로2046번길 19-2
- 7 작은공연장 단 강원도 강릉시 경강로2046번길 5
- 8 강릉독립예술극장 신영 강원도 강릉시 경강로 2100 4층
강릉역 강릉역 버스 정류장(정류장번호: 4200721)에서 300, 302, 314번 승차
교보생명 정류장 하차

*작업 동려본 GIAF 스테프의 말

GIAF25가 열리는 명주동 인근은 길이 좁고 차량 진입이 복잡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것이 편리합니다.
특히 도보 이동시, 강릉 시내 곳곳에서 열리는 벚꽃 축제를 감상하며 봄의 정취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걷는 여정 속에서 명주동의 분위기와 자연의 아름다움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도보 이동을 추천해 드립니다.

1	Gangneung Station	176 Yongji-ro, Gangneung-si, Gangwon-do
2	Okcheon-dong Warehouse	2 Dongbusijang 3-gil, Gangneung-si, Gangwon-do From Gangneung Station 924m walk Take bus 112, 202, or 233 from Across from Gangneung Station Bus Stop(Stop No. 4200293), get off at Korea Asset Management Cooperation
3	Gangneung-daedohobu Government Office	6 Imyeong-ro 131beon-gil, Gangneung-si, Gangwon-do Parking Public Parking (5 Myeongju-ro 35beon-gil, Gangneung-si, Gangwon-do) Public Parking (14 Myeongju-dong, Gangneung-si, Gangwon-do) Private Parking (138-1 Nammun-dong, Gangneung-si, Gangwon-do) From Gangneung Station Take bus 300, 302, or 314 from Gangneung Station Bus Stop (Stop No. 4200721), get off at Hana Financial Investment ※ Gangneung-daedohobu Government Office, Former Hahm's Surgical Clinic, Changpo Bridge, Seven-Roomed Yeogwan, and Small Theater Dan are all within walking distance of each other. Please use the same public transportation and parking information.
4	Former Hahm's Surgical Clinic	17 Gyeonggang-ro 2024beon-gil, Gangneung-si, Gangwon-do
5	Changpo Bridge	77-2, Nammun-dong, Gangneung-si, Gangwon-do
6	Seven-Roomed Yeogwan	19-2 Gyeonggang-ro 2046beon-gil, Gangneung-si, Gangwon-do
7	Small Theater Dan	5 Gyeonggang-ro 2046beon-gil, Gangneung-si, Gangwon-do
8	Sinyeong Theater	4F, 2100 Gyeonggang-ro, Gangneung-si, Gangwon-do From Gangneung Station Take bus 300, 302, or 314 from Gangneung Station Bus Stop (Stop No. 4200721), get off at Kyobo Life Insurance Bus Stop

***Comments by the GIAF Staff Who Have Visited Myeongju-dong**

As the Myeongju-dong area, where the venues of GIAF25 are located, has narrow roads and complex traffic patterns, it is advised to use public transportation to access the area. During the festival, you can stroll through various cherry blossom festivals scattered across the towns of Gangneung, enjoying the vivid spring scenery. If you plan to drive, please park in the designated parking lots recommended by GIAF and walk to the festival venues.

운영 시간 및 관람 안내 Visitors Information

페스티벌 관련 문의는 이메일 prcf@pharmaresearch.co.kr 또는 031-8039-1411, 1412로 연락 바랍니다.

For inquiries regarding the festival, please contact via email at prcf@pharmaresearch.co.kr or by phone at 031-8039-1411, 1412.

관람 시간 10:00 - 18:00

Visiting Hours 10:00 - 18:00

-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강릉역
(페스티벌 기간 중 무휴) 옥천동 웨어하우스
(페스티벌 기간 중 무휴) 강릉대도호부 관아
(페스티벌 기간 중 무휴) 옛 함외과의원
(페스티벌 기간 중 무휴) 창포다리
(페스티벌 기간 중 상시관람 가능) 일곱칸짜리 여관
(페스티벌 기간 중 무휴) 작은공연장 단
(매주 토, 일 15시 퍼포먼스 / 매주 월요일 휴관) 강릉독립예술극장 신영
(매주 금, 토, 일 16시 상영)
QR코드를 스캔하면
예매장으로 연결됩니다. | <ol style="list-style-type: none"> Gangneung Station
(Open daily during the festival period.) Okcheon-dong Warehouse
(Open daily during the festival period.) Gangneung-daedohobu Government Office
(Open daily during the festival period.) Former Hahm's Surgical Clinic
(Open daily during the festival period.) Changpo Bridge
(Open to the public throughout the festival period.) Seven-Roomed Yeogwan
(Open daily during the festival period.) Small Theater Dan
(Performances every Saturday and Sunday at 3 p.m.
/ Closed every Monday) Sinyeong Theater
(Screened Every Friday, Saturday, and Sunday at 4 p.m)
Scan the QR code to open the reservation page
for Sinyeong Theater. |
|--|--|



셔틀버스 운행

운행 요일 매주 화 - 일
시간 10:00 - 15:00 사이 운행
인원 25인승 버스 운행
탑승 방법 선착순 탑승
웹사이트 <http://giartfestival.com>
 ※출발 시간 및 탑승 위치 등 자세한 사항은 웹사이트를 확인해주세요!

Shuttle Bus Service

Service days Tuesdays through Sundays
Time 10:00 - 15:00
Bus size 25-seater bus
How to ride First come, first serve
Website <http://giartfestival.com>

※Please refer to the website for more details, such as departure times and boarding stops.





QR코드를 스캔하면 프로그램 및 퍼포먼스, 워크숍을 사전 예약할 수 있습니다.
Please scan the QR code to make a reservation for programs, performances and workshops in advance.

운영 일정 및 참여 방법 Operation Schedule

월 MON 화 TUE 수 WED 목 THU 금 FRI 토 SAT 일 SUN

강릉역 Gangneung Station	전시 Exhibition	● ● ● ● ● ● ●
옥천동 웨어하우스 Okcheon-dong Warehouse	전시 Exhibition	● ● ● ● ● ● ●
강릉대도호부 관아 Gangneung-daedohobu Government Office	전시 Exhibition	● ● ● ● ● ● ●
옛 함외과의원 Former Hahm's Surgical Clinic	전시 Exhibition	● ● ● ● ● ● ●
	키와림 워크숍 Kiwalm's Workshop	□
창포다리 Changpo Bridge	전시 Exhibition	● ● ● ● ● ● ●
일곱칸짜리 여관 Seven-Roomed Yeogwan	전시 Exhibition	● ● ● ● ● ● ●
	서다솜 워크숍 SUH Dasom's Workshop	□ ● ● ●
작은공연장 단 Small Theater Dan	전시 Exhibition	● ● ● ● ● ● ●
	퍼포먼스 Performance	□ ● ●
	이양희 워크숍 Yanghee Lee's Workshop	□
강릉독립예술극장 신영 Sinyeong Theater	전시 Exhibition	● ● ●

월 MON 화 TUE 수 WED 목 THU 금 FRI 토 SAT 일 SUN

시티도슨트 & 시티가이드 City Docent & City Guide	□ ● ● ● ●
강원지방기상청과 함께하는 어린이 도슨트 Children's Docent Program	□
다문화권센터와 함께하는 다국어 도슨트 Multilingual Docent Program	□ □ □ □
강연 프로그램 Lecture Program	●

- 전시 Exhibition
- 당일 현장 접수 불가 Reservation only
- 당일 현장 접수 가능 On-site registration is available

시티도슨트 & 시티가이드 프로그램

City Docent & City Guide Program

GIAF25는 시티도슨트와 시티가이드가 한 팀이 되어 페스티벌 공간과 경로상의 주요 장소들을 함께 안내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시티도슨트는 전시를 해설하고, 시티가이드는 강릉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하며, 이를 통해 관람객이 페스티벌을 넘어 도시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 새롭게 바라볼 수 있도록 돕습니다.

At GIAF25, City Docents and City Guides work together to introduce festival venues and key locations. City Docents explain the exhibitions, while City Guides share Gangneung's history and culture, helping visitors see the city in a new light.

운영 일정 및 시간

진행 요일	매주 목, 금, 토, 일요일
출발 시간	10:10 ※관람객의 참여도에 따라 소요시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출발 장소	강릉역 내부 1번 출구 앞
참여 대상	만 14세 이상 회당 10 - 15명
신청 방법	QR코드를 스캔하면 네이버 예약창으로 연결됩니다. (당일 현장 접수 가능)



Operation Schedule

Operating days	Every Thursday, Friday, Saturday, and Sunday
Departure time	10:10 ※The time required for the tour may vary depending on visitor participation
Starting location	Inside Exit 1 of Gangneung Station
Application requirements	14 years and older
Group size	10 to 15 participants per session
How to apply	Scan the QR code to open the Naver reservation page. (On-site registration is available)

*GIAF 스태프 추천 맛집

점심시간에 가기 좋은 식당과 카페 리스트를 소개합니다. 직접 방문해 맛본 곳들만 엄선했습니다!

*GIAF Staff Recommended Restaurants/Cafes

Here's a list of restaurants and cafes perfect for lunchtime.
Personally selected from places we've enjoyed and experienced!



시티도슨트 & 시티가이드 지도 Map of City Docent & City Guide

- 시티도슨트
City Docent
- 시티가이드
City Guide



시티도슨트 & 시티가이드 단체예약

City Docent & City Guide Group Reservation

*가족, 동료, 친구들과 함께 강릉 시내를 거닐며, 제3회 강릉국제아트페스티벌에서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Enjoy the Gangneung International Art Festival 2025 (GIAF25) while strolling around Gangneung city with your family, colleagues, or friends!

신청 인원 최소 6명 - 최대 15명

출발 시간 12:00 또는 14:00 중 선택

출발 장소 강릉역 내부 1번 출구 앞

신청 방법 QR코드를 스캔하면 네이버 예약창으로 연결됩니다. (당일 현장 접수 불가)



Group size	Minimum 6 participants - Maximum 15 participants
Departure time	Choose between 12:00 or 14:00
Starting	Inside Exit 1 of Gangneung Station
How to apply	Scan the QR code to open the Naver reservation page. (Reservation only)

산학협력단

(재)파마리서치문화재단은 가톨릭관동대학교, 강릉영동대학교와의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식적으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을 바탕으로 시티도슨트를 모집하여 지역 대학생들에게 진로 탐색의 기회와 문화예술을 체험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합니다.

University-Industry Collaboration

The PharmaResearch Culture Foundation has signed a MOU with Catholic Kwandong University and Gangneung Youngdong University to fortify mutual cooperation.

As part of this agreement, the foundation provides local university students with opportunities to explore career paths by recruiting them as City Docents.

도시재생 마을해설사

명주동과 중앙동의 마을해설사와 연계하여, 지역의 역사적·문화적 특성을 소개하는 시티가이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관람객들에게 새로운 방식의 축제 경험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의 문화적 가치를 높이고, 지역 주민과 관람객 모두에게 뜻깊은 경험을 선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Local Town Guides

In collaboration with City Guides from Myeongju-dong and Jungang-dong, the town guides introduce the historical and cultural features of the local area, offering visitors a refreshing way to experience the festival. This initiative is designed to provide a more engaging experience for both visitors and residents by enhancing the cultural value of the community.

* 박스 안에는 협력 기관 및 단체의 소개 자료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The box contains materials introducing partner organizations and groups.

GIAF25는 강원지방기상청과 협력하여 지역 기후 자료를 바탕으로 어린이들이 강릉의 독특한 기상과 지형이 만들어낸 자연환경과 문화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특별 도슨트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강릉대도호부 관아 관람, 기상 캐스터 체험, 워크지 활동 등이 포함됩니다.

GIAF25 utilizes regional climate data in collaboration with the Gangwon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and helps children understand Gangneung's unique climate and natural environment. To that end, a free docent program is offered, customized to children's perspectives.

운영 일정 및 시간

진행 요일	매주 화요일
진행 시간	10:00 - 12:00
출발 장소	강릉대도호부 관아 아문 앞
투어 코스	강릉대도호부 관아 → 강원지방기상청
참여 대상	강릉(강원) 유치원생, 초등학교생 단체
신청 방법	QR코드를 스캔하면 네이버 예약창으로 연결됩니다. (당일 현장 접수 불가)



Operation Schedule

Operating days	Every Tuesday (Once a week, total of 5 sessions)
Operating time	10:00 - 12:00
Starting location	Gangneung-daedohobu Government Office
Tour course	Gangneung-daedohobu Government Office to Gangwon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Application requirements	Kindergarten and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 Gangneung (Gangwon)
How to apply	Scan the QR code to open the Naver reservation page. (Reservation only)

강원지방기상청

강원지방기상청은 대한민국 기상청의 지역 관할 기관 중 하나로, 강원도 지역의 기상 관측, 예보, 기후 자료 분석 등을 담당합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이번 페스티벌의 주요 협력기관으로 참여하여, 강릉 지역 특유의 기후 현상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문화 예술 활동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Gangwon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As one of the regional branches of the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the Gangwon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is responsible for weather observation, forecasting, and climate data analysis in Gangwon-do. Characterized by mountainous terrain and a long coastline with diverse and complicated weather patterns, Gangneung relies on the Gangwon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to provide region-specific weather services. As a key partner in GIAF25, the administration contributes to the local art and culture scene by providing data on Gangneung's unique climatic phenomena.

강연 프로그램 Lecture Program

GIAF25는 페스티벌을 더욱 풍성하게 즐기고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특별 강연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페스티벌의 다양한 이야기를 세부적으로 탐구하며, 협력자들의 통찰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전시와 주제를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Special lecture programs have been prepared to further enrich GIAF25. These programs explore the detailed categories of the various "stories" that run through GIAF25, offering visitors opportunities to better understand and enjoy the exhibitions and themes with the insights and expertise of collaborators.

운영 일정 및 시간

진행 요일	매주 수요일
시간 및 장소	17:00 - 18:30, 강릉대도호부 관아 동대청
참여 대상	만 14세 이상 회당 10-15명 이내
신청 방법	QR코드를 스캔하면 네이버 예약창으로 연결됩니다. (당일 현장 접수 가능)
강연자	1회차 이종덕(문화예술플랫폼 봄아 대표) 2회차 허경(칠학학교 혜음 철학자) 3회차 황루시(민속학자, 가톨릭관동대 명예교수) 4회차 박현숙(설화연구자) 5회차 김운석(강릉단오제 무격부 전승교육사)



Operation Schedule

Operating days	Every Wednesday
Time and venue	17:00 - 18:30 in Dongdaechong, Gangneung-daedohobu Government Office
Application requirements	14 years and older and 10 to 15 participants per session
How to apply	Scan the QR code to open the Naver reservation page. (On-site registration is available)

GIAF25는 GIAF22부터 매회 (사)다봄인권센터와 협력하여 다국어 도슨트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강릉에 거주하는 다국적 도슨트들이 페스티벌을 찾은 외국인 관람객에게 자신의 모국어로 페스티벌을 소개합니다.

To enhance accessibility and enrich the experience of international visitors, GIAF25 offers a multilingual docent program in collaboration with the Dabom Human Rights Center (Inc.). This service is led by docents from diverse cultural backgrounds who reside in Gangneung, providing foreign visitors with in-depth explanations of participating artists and artworks in their native languages.

운영 일정 및 시간

진행 요일 전시 운영 기간 동안 예약 접수된 건에 한해 운영
참여 대상 자신의 모국어로 도슨트 프로그램을 즐기고 싶은 누구나
지원 언어 영어, 일본어, 러시아어, 중국어,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몽골어, 태국어 총 8개국 언어
신청 방법 QR코드를 스캔하면 네이버 예약창으로 연결됩니다. (당일 현장 접수 불가)



Operation Schedule

Operating days Available throughout the exhibition period, exclusively for pre-booked reservations.
Application requirements Foreign visitors who want to enjoy docent services in their native language
Supported languages 8 Languages including English, Japanese, Russian, Chinese, Vietnamese, Indonesian, Mongolian, Thai
How to apply Scan the QR code to open the Naver reservation page. (Reservation only)

(사)다봄인권센터

사단법인 다봄인권센터는 모든 형태의 차별과 권리 침해에 맞서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비영리법인입니다. 다양한 문화와 환경 속에서 조화롭게 공존하는 세상을 지향하며, 포용적인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2년부터 페스티벌과 협력해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Dabom Human Rights Center (Inc.)

The Dabom Human Rights Center is a nonprofit organization dedicated to protecting and promoting human rights by opposing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nd violations. Committed to fostering an inclusive society, it has been collaborating with the festival since 2022.

강릉바우길과 강릉 걷기 Walk with Gangneung Baugil

강릉의 봄을 만끽할 수 있는 최고의 걷기 코스를 (사)강릉바우길의 추천으로 소개합니다. '초희길'은 경포 벚꽃축제 구간과 겹쳐, 축제 기간 동안 흐드러진 벚꽃을 감상하며 걸을 수 있는 특별한 길입니다. '굴산사 가는 길'은 '강릉의 오래된 이야기'를 주제로 한 페스티벌과 어우러져, 강릉의 깊은 역사와 문화를 느끼기에 좋은 코스로 추천되었습니다. 맑은 공기 속에서 자연과 이야기가 함께하는 길을 걸으며 봄의 정취를 만끽해보세요!

Explore Gangneung's best spring walking trails, recommended by the Gangneung Baugil Association (Inc.). "Chohee-gil" runs through the Gyeongpo Cherry Blossom Festival route, offering a scenic walk under blooming cherry trees. The "Trail to Gulsansa Temple" reflects the festival's "Old Story of Gangneung" theme, making it a great way to experience the city's folklore. Breathe in the fresh air and enjoy the beauty of spring on these remarkable trails.

(사)강릉바우길의 추천코스

Recommended Courses by the Gangneung Baugil Association (Inc.)



강릉바우길 6구간 굴산사 가는 길

Gangneung Baugil Road Course 6, *Trail to Gulsansa Temple*



강릉바우길 14구간 초희길

Gangneung Baugil Road Course 14, *Chohee-gil*

강릉바우길

강릉바우길의 '바우'는 강원도 말로 바위를 뜻하며, 강원도와 강원도 사람을 친근하게 부를 때 감자바우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바우길도 이러한 이름처럼 자연-인간 친화적인 트레킹 코스로, 다양한 경로가 특징입니다. 백두대간에서 경포, 정동진까지의 산맥과 바다를 함께 걷는 총 약 400km의 코스는 17개 구간의 강릉바우길, 2개 구간의 대관령바우길, 울트라바우길, 계곡바우길, 아리바우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Gangneung Baugil

Baugil is a nature-friendly trekking course, featuring various routes. The 400km course, which walks along the mountain range and sea from Baekdudaegan to Gyeongpo and Jeongdongjin, consists of 17 sections of Gangneung Baugil, two sections of Daegwallyeong Baugil, Ultra Baugil, Valley Baugil, and Aribaugil.

GIAF25에서 소개하는 서다솜 작가의 신작 워크숍 <있는 없는(Things Non-negligible)>은 작가가 2019년부터 진행해 온 프로젝트 <Practice Makes Practice>의 일환으로, 일곱칸짜리 여관에서 설치 작품과 함께 선보입니다.

작가는 우리 주변에서 '마치 도깨비와 같은 존재'로 여겨지는 사람들을 거점으로 초대하여 첫 번째 워크숍을 진행합니다. 이들은 1박 2일 동안 일종의 '도깨비 모임'에 참여하고, 이 모임은 영상으로 기록됩니다. 두 번째 워크숍은 GIAF25 전시 기간 중 약 6명의 관람객과 함께 진행됩니다. 참여자들은 첫 번째 워크숍에서 도깨비들이 나눈 이야기를 전해 들으며, 작가가 재해석한 '도깨비가 좋아하는 음식'을 나누어 먹습니다. 작가는 동시대를 살아가는 도깨비들의 삶에 대한 태도에서 가르침을 발견하고, 이를 바탕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통찰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Artist SUH Dasom presents *Things Non-negligible*, a new installation and workshop series as part of her ongoing project, *Practice Makes Practice*. Hosted at Seven-Roomed Yeogwan, this work explores the habits and folklore of *dokkaebi* (Korean goblins) through a contemporary lens, shedding light on the ways these mythical beings intersect with everyday life in Gangneung's peripheral spaces.

The project unfolds in two stages: The first workshop begins with an intimate gathering of individuals selected for their dokkaebi-like qualities. Over the course of two days, participants engage in an immersive experience, their interactions documented through video. The second workshop invites six members of the audience to dusk sessions, where they listen to stories shared in the first workshop and reflect on dokkaebi's unique approach to life, drawing parallels to their own experiences. In addition, they partake in dishes inspired by reinterpretations of traditional dokkaebi foods, reinforcing the idea of discovering insights from folklore that resonate in our present-day reality.

운영 일정 및 시간

진행 요일	매주 금, 토, 일요일
시간 및 장소	18:00 - 20:00, 일곱칸짜리 여관
참여 대상	초등학생 이상, 회당 6명 내외
신청 방법	QR코드를 스캔하면 네이버 예약창으로 연결됩니다. (당일 현장 접수 가능)



Operation Schedule

Operating days	Every Friday, Saturday, and Sunday
Time and venue	18:00 - 20:00 at Seven-Roomed Yeogwan
Application requirements	Elementary school students and above, approximately 6 participants per session
How to apply	Scan the QR code to open the Naver reservation page. (On-site registration is available)

GIAF25는 키와림 작가와 매주 목요일 옛 함외과원에서 워크숍 <사물들(Les choses)>을 진행합니다. 워크숍은 조르주 페렉의 동명의 소설에 영감을 받아, 일상 속 사물들이 지닌 이야기와 기억을 새롭게 조명합니다. 소설 속 주인공 실비와 제롬은 주말마다 벼룩시장을 찾다니며, 마치 유령처럼 목적 없이 사물들 속을 떠돕니다. 그들의 삶에 쌓인 사물들은 단순한 물건을 넘어 시절의 흔적이 되고, 이야기를 만들며, 기억을 미화합니다.

참여자들은 전시에 놓인 사물 중 하나를 골라 이야기를 나눈 뒤, 돌아가며 한 문장씩 이어 써 내려갑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문장들이 모여 소설 한 페이지를 완성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물들'은 새로운 이야기를 품으며 점차 확장되고, 각자의 기억과 상상력이 더해져 평범한 사물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At GIAF25, artist duo Kiwalim presents *Les choses*, a workshop series inspired by Georges Perec's novel of the same name, held every Thursday at Former Hahm's Surgical Clinic. This workshop reimagines the stories and memories of everyday objects, exploring how inanimate things accumulate meaning over time.

In Perec's novel, protagonists Jérôme and Sylvie aimlessly wander through flea markets. The items they collect transcend from mere possessions—they become traces of life, vessels of memory, and sources of nostalgia. Drawing from this idea, Kiwalim's workshop invites participants to engage with objects in a similar way, unlocking their hidden narratives. Participants begin by selecting an object from the exhibition, engaging in discussions about its meaning and significance. Then, in a collaborative writing exercise, participants collectively shape a single page of a novel. The objects gain new layers of storytelling, expanding beyond their physical form to become carriers of imagination, memory, and shared experience.

운영 일정 및 시간

진행 요일	매주 목요일
시간 및 장소	12:20 - 13:30, 옛 함외과원
참여 방법	본 워크숍은 목요일에 시티도슨트 & 시티가이드 신청자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워크숍 진행 중 전시장 출입이 제한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Operation Schedule

Operating days	Every Thursday
Time and venue	12:20 - 13:30 at Former Hahm's Surgical Clinic
How to apply	This workshop is only open to City Docent & City Guide applicants on Thursday. ※ Please note that access to the exhibition hall is restricted during workshops. Thank you for your understanding.

이양희 퍼포먼스 <이양희 산조>, 워크숍 <매스> Yanghee Lee's Performance LEEYANGHEE SANJO Workshop MASS

GIAF25는 이양희 작가와 작은 공연장 단에서 매주 토, 일요일 퍼포먼스 <이양희 산조(LEEYANGHEE SANJO)>를, 매주 금요일에는 워크숍 <매스(MASS)>를 진행합니다. 워크숍에서는, 이양희 춤의 원천인 한국 전통(신)무용과 클럽댄스를 통해 각자의 몸을 감각하며 원시의 춤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참여자는 작가의 지시에 따라 때로는 관객으로, 때로는 참여자로 즉흥적인 퍼포먼스를 경험하고, 나와 공동체가 새롭게 연결되는 특별한 순간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GIAF25 hosts the performance LEEYANGHEE SANJO every Saturday, Sunday and the workshop MASS every Friday and at Small Theater Dan with the artist Yanghee Lee. With the help of Korean traditional (or modern) dance and club dance, which form the roots of the artist's dance performances, participants are encouraged to return to primitive dance, becoming more attuned to their own bodies and reconnect with their improvisational expression.

Under the artist's guidance, attendees engage in the workshop by shifting between roles—sometimes as performers, sometimes as the audience, allowing attendees to experience a new sense of community.

퍼포먼스 일정 및 시간

진행 요일 매주 토, 일요일
시간 및 장소 15:00 - 15:30, 작은공연장 단
신청 방법 QR코드를 스캔하면 네이버 예약창으로 연결됩니다. (당일 현장 접수 가능)



Operation Schedule for the Performance

Operation days Every Saturday and Sunday
Time and Venue 15:00 - 15:30 at Small Theater Dan
How to apply Scan the QR code to open the Naver reservation page. (On-site registration is available)

워크숍 운영 일정 및 시간

진행 요일 매주 금요일
시간 및 장소 14:30 - 15:40, 작은공연장 단
참여 대상 만 13세 이상, 회당 최대 26명
신청 방법 QR코드를 스캔하면 네이버 예약창으로 연결됩니다. (당일 현장 접수 가능)
※ 퍼포먼스 및 워크숍 진행 중 전시장 출입이 제한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Operation Schedule for the Workshop

Operating days Every Friday
Time and venue 14:30 - 15:40 at Small Theater Dan
Application requirements age 13 and older, with a maximum of 26 participants
How to apply Scan the QR code to open the Naver reservation page. (On-site registration is available)
※ Please note that access to the exhibition hall is restricted during performances and workshops. Thank you for your understanding.

페스티벌 장소 및 참여작가

강릉역

김재현

옥천동 웨어하우스

정연두

강릉대도호부 관아

윤석남

홍이현숙

흐라이르 사르키시안

안민옥

옛 함외과의원

이해민선

키와림

창포다리

김재현

일곱칸짜리 여관

서다솜

작은공연장 단

이양희

강릉독립예술극장 신영

호추니엔

Festival Venues and Participating Artists for GIAF25

Gangneung Station

KIM JAE HYEON

Okcheon-dong Warehouse

Jung Yeondoo

Gangneung-daedohobu Government Office

YUN Suknam

Hong Lee Hyunsook

Hrair Sarkissian

Minok AN

Former Hahm's Surgical Clinic

Leehaiminsun

Kiwalim

Changpo Bridge

KIM JAE HYEON

Seven-Roomed Yeogw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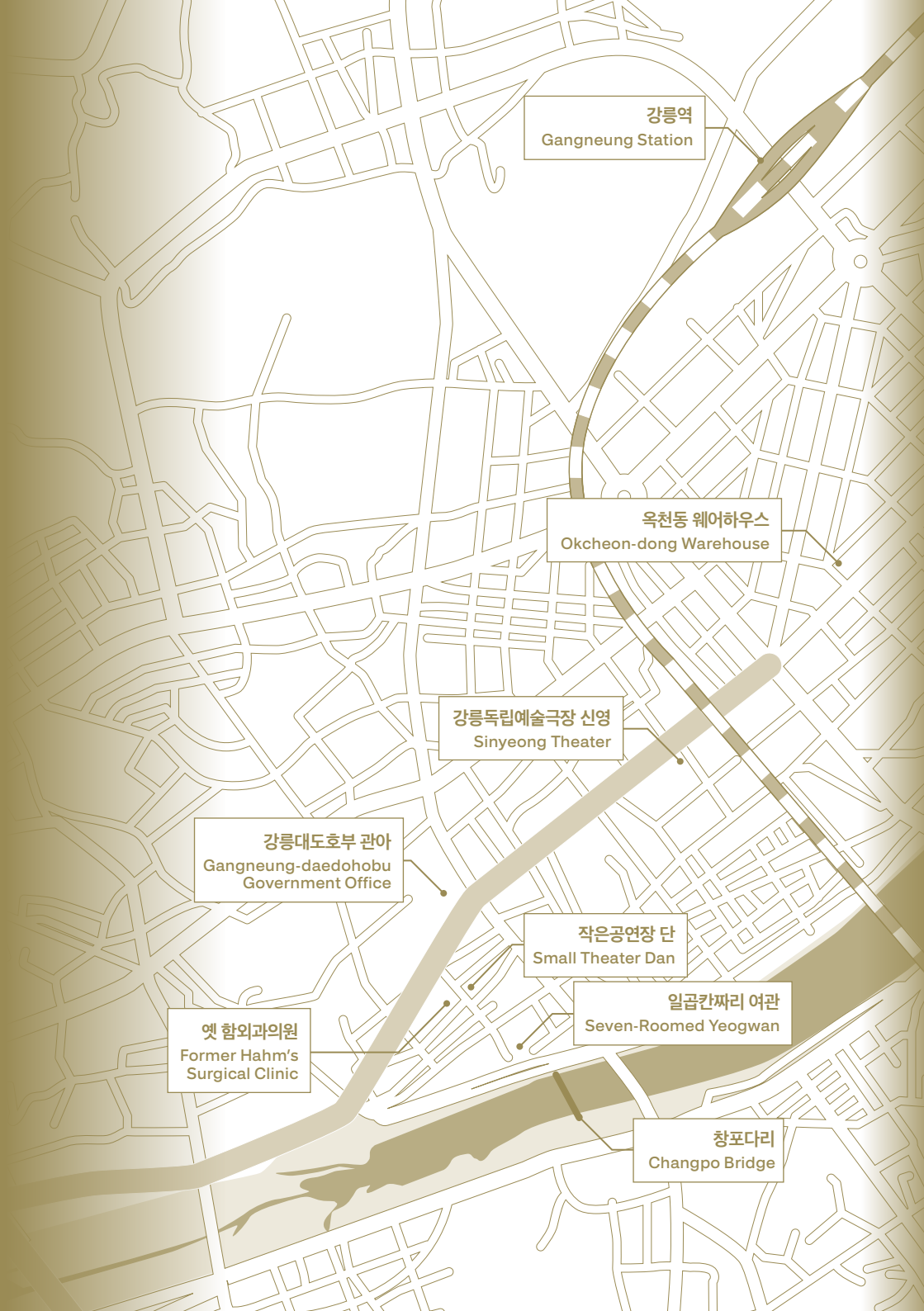
SUH Dasom

Small Theater Dan

Yanghee Lee

Sinyeong Theater

Ho Tzu Nyen



강릉역
Gangneung Station

옥천동 웨어하우스
Okcheon-dong Warehouse

강릉독립예술극장 신영
Sinyeong Theater

강릉대도호부 관아
Gangneung-daedohobu
Government Office

옛 함외과의원
Former Hahn's
Surgical Clinic

작은공연장 단
Small Theater Dan

일곱칸짜리 여관
Seven-Roomed Yeogwan

창포다리
Changpo Bridge

강릉역은 강원도 강릉시에 자리한 주요 철도역으로, 강릉과 주변 지역을 잇는 교통 중심지입니다. 1962년 개설 이래 강원도 내 철도 교통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며,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서울에서 강릉까지 약 2시간 내외로 이동할 수 있는 고속철도(KTX) 경강선을 개통하면서 서울로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됐습니다. 또한 강릉역은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추어 이용객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합니다. 현대적 시설뿐 아니라 경포대, 정동진, 오죽헌 등 주요 관광지로의 접근성이 뛰어나, 강릉의 역사, 문화, 관광 중심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뛰어난 교통 편의성과 높은 접근성 덕분에 강릉은 국내외 관광객이 꼭 방문해야 할 필수 관문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재)파마리서치문화재단과 강릉역은 MOU를 체결해 강릉역을 거점으로 문화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나아가 예술과 지역을 연결하고자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페스티벌에서는 강릉역을 페스티벌 장소 중 하나로 활용해 강릉 시민의 예술 접근성을 높이고, 강릉역을 찾는 방문객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합니다.

As the primary railway station in Gangneung, Gangwon-do, Gangneung Station serves as a vital transportation hub, connecting the city to major destinations. Since its establishment in 1962, the station has played a crucial role in facilitating rail travel across the region. Its significance was further elevated with the introduction of the KTX Gyeonggang Line, a high-speed rail system developed in preparation for the 2018 PyeongChang Winter Olympics. This addition has dramatically enhanced accessibility, allowing passengers to travel from Seoul to Gangneung in approximately two hours. The station also provides easy access to Gangneung's iconic attractions, including Gyeongpodae Pavilion, Jeongdongjin and Ojukheon House.

In an effort to bridge art and the local community, Gangneung Station has partnered with the PharmaResearch Culture Foundation through an MOU agreement. As part of this festival, the station is showcasing artworks, transforming it into a space where daily commutes and artistic encounters intertwine. This initiative not only makes art more accessible to the public but also offers a unique cultural experience for visitors passing through the station, reinforcing Gangneung Station's role as a dynamic gateway to both travel and creativity.

김재현(b.1994)은 GIAF25의 강원지역 기반 작가공모를 통해 선정된 강릉 태생의 작가로, 현재 서울과 강릉을 오가며 애니메이션, 디지털 페인팅, 드로잉 등의 다양한 작업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작가는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한 사건들을 상징적인 이미지와 비선형적인 이야기로 바꾸어 내면의 세계를 탐구하며, 인지와 감각, 의식과 무의식의 관계를 질문합니다.

주요 개인전으로 《마인드 홀홀홀》(빈칸 을지로, 2023), 《Collect, Scenery, Fragment》(LAZZY, 파주 헤이리예술마을, 2024) 등이 있으며, 주요 단체전으로는 《Bodyologies VIII》(Ospizio Giovani Artisti, 이탈리아, 2024), 《WAVE TO WAVE》(피어 컨템포러리, 2024) 등이 있습니다. 제53회 Sehsuechte 국제 학생 영화제, 스페셜 프로그램 씨네이스트 부문(독일, 2024), 제12회 파리 국제 애니메이션 영화제, 실험 애니메이션 부문(프랑스, 2024), 제46회 클레르몽페랑 국제 단편 영화제, 숏필름마켓(프랑스, 2024), 제7회 베를린 애니메이션 영화제, 뉴 탠런트 부문(독일, 2023) 등 세계 유수의 영화제에 초청된 바 있습니다.

Born in Gangneung, KIM JAE HYEON (b. 1994) was selected through GIAF25's open call for artists based in the Gangwon region. Moving between Gangneung and Seoul, KIM works across multiple medias including animated film, digital painting, and drawing. Her artistic practice is centered on transforming personal experiences into abstract imagery and non-linear narratives that delve into the complexities of the inner world. Through her work, she questions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ption and sensation, consciousness and unconsciousness, challenging conventional ways of seeing and feeling.

KIM's major solo exhibitions include *Mind HOLE HOLE HOLE* (Bincan Euljiro, 2023), *Collect, Scenery, Fragment* (LAZZY, Heyri Artvalley in Paju, 2024), and major group exhibitions include *Bodyologies VIII* (Ospizio Giovani Artisti, Italy, 2024), and *WAVE TO WAVE* (Pier Contemporary, 2024). She has been invited to participate in distinguished film festivals worldwide, including the Special Program "cine:east" at the 53rd Sehsuechte International Student Film Festival (Germany, 2024), the Experimental Selection of the 12th Paris International Animation Film Festival (France, 2024), the Short Film Market of the 46th Clermont-Ferrand Short Film Festival (France, 2024), and the New Talent category of the 7th Festival of Animation Berlin (Germany, 2023).

옥천동 웨어하우스는 동부시장 근처에 위치한 공간으로, 과거 양곡 창고로 시작해 냉동 창고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었으나, 오랜 시간 유허공간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제2회 강릉국제아트페스티벌(GIAF23)에서는 이곳을 누구에게나 열린 전시 공간으로 새롭게 탈바꿈시키며, 전시장으로서의 가능성을 처음으로 선보였습니다. 이 시도는 지역사회와 관람객에게 큰 호응을 얻었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이번 페스티벌에서도 다시 한 번 전시장으로 활용됩니다. 옥천동 웨어하우스는 단순한 유허 공간을 넘어, 지역의 문화 예술 활동을 연결하는 상징적인 장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를 통해 지역과 예술이 더욱 가까워지는 의미 있는 공간으로 거듭나길 기대합니다.

Nestled near Dongbu Market, Okcheon-dong Warehouse stands as a key site in Gangneung's urban regenerative efforts. Originally serving as a granary before transitioning into a cold storage facility for frozen goods, the warehouse eventually fell into disuse for many years. Its revival began with the GIAF23, which transformed the abandoned structure into a public exhibition space. This initiative was met with overwhelming enthusiasm from both the local community and visitors, proving the potential of repurposing historical spaces for cultural engagement. Building on this success, GIAF25 continues to utilize the Okcheon-dong Warehouse, reinforcing its role as a symbolic bridge between sustainable urban renewal and artistic expression.

Now a vibrant cultural landmark, the warehouse fosters accessibility to art, inviting a broader audience to engage with creativity in an environment rich with history and transformation.

정연두(b.1969)는 퍼포먼스가 직·간접적으로 등장하는 사진, 영상 등의 미디어 작업에 주력해 왔습니다. 시각예술과 퍼포먼스, 공연과 영화의 맥락을 넘나드는 복합 매체 작업을 통해 이질적인 문화 환경을 접합하는 작품들을 선보이며, 서로 다른 시공간의 인물들을 연결하거나, 다큐멘터리와 픽션, 개인과 사회를 접속시키는 작업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작가는 시, 음악, 연극의 언어를 경유하면서 현실을 새롭게 조망하는 태도를 탐구해 왔습니다.

주요 개인전으로 《MMCA 현대차 시리즈 2023: 정연두 백년 여행기》(국립현대미술관, 2023), 《여기와 저기 사이》(스페이스 윌링앤딜링, 2020), 《지금, 여기》(페리지 갤러리, 2019), 《夕立 - Between Day & Night》(코마고메 소코, 도쿄, 일본, 2018), 《Yeondoo Jung: Behind the Scenes》(노턴미술관, 웨스트 팜비치, 미국, 2017) 등이 있으며, 주요 단체전으로는 《디코딩 코리아》(그랑팔레이메르시프, 파리, 2024) 《모든 섬은 산이다: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 30주년 특별전시》(베니스 말타 기사단 수도원, 이탈리아, 2024), 《The Shape of Time: Korean Art after 1989》(필라델피아 미술관, 미국, 2023) 등이 있습니다. 현재 성균관대학교에서 미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Jung Yeondoo (b. 1969) has focused his artistic practice primarily on media works including photography, video, performance, theater, and film. His works often merge disparate cultural environments, creating a dynamic interplay between documentary and fiction, individuals and society. By incorporating performance directly or indirectly into his media works, Jung challenges conventional storytelling, offering fresh interpretations of reality through the lens of poetry, music, and theater.

Jung's major solo exhibitions include *MMCA Hyundai Motor Series 2023: Jung Yeondoo One Hundred Years of Travels*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2023), *Here and Elsewhere / d'Ici et d'Ailleurs* (Space Willing N Dealing, 2020), *Here, Now* (Perigee Gallery, 2019), *Yudachi - Between Day & Night* (Komagome SOKO, Tokyo, Japan, 2018), and *Yeondoo Jung: Behind the Scenes* (Norton Museum of Art, West Palm Beach, USA, 2017). His major group exhibitions include *Decoding Korea* (Grand Palais Immersif, Paris, France, 2024), *Every Island is a Mountain* at the 30th Anniversary Exhibition Celebrating the Korean Pavilion at the Venice Art Biennale (Palazzo Malta - Ordine di Malta, Italy, 2024), *The Shape of Time: Korean Art after 1989* (Philadelphia Museum of Art, USA, 2023). Jung is currently teaching art at Sungkyunkwan University.

강릉대도호부 관아는 고려 시대부터 조선 시대까지 지방의 큰 고을을 다스리던 관청으로, 조선 시대 『임영지』의 기록을 통해 그 중요성이 잘 드러나는 유적입니다. 관아의 주요 건축물 중 하나인 임영관 삼문은 고려 태조 19년(936)에 총 83칸으로 지어진 강릉 객사(客舍)의 정문으로, 오늘날 객사 건물은 없어지고 이 문만 남아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문루에 걸려 있던 '임영관'이란 현판은 공민왕이 직접 쓴 것으로 알려지며, 이 현판은 2006년 10월 임영관을 복원하면서 원래 있던 자리인 전대청(殿大廳)에 옮겨 걸어 현재는 전대청에서 공민왕의 친필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영관 삼문은 일제강점기 철거로 대부분의 건물이 사라진 이후에도 남아 복원의 기준점 역할을 해왔으며, 고려 시대 건축물 중 현존하는 몇 안 되는 귀중한 유산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번 페스티벌에서는 역사적으로 유서 깊은 강릉대도호부 관아를 페스티벌 공간으로 선보이며, 역사적 공간과 현대 미술을 연결해 새로운 시각과 경험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공간의 역사적 의미와 예술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있습니다.

The Gangneung-daedohobu Government Office served as the administrative center for major villages from the Goryeo Dynasty to the Joseon Dynasty, playing a crucial role in regional governance. Its historical significance is well-documented in the Imyeongji (Chronicles of Imyeong), a record from the Joseon Dynasty that highlights the site's importance.

The Imyeongggwan Guesthouse, which once enshrined ancestral tablets representing the king, holds deep historical significance in the architectural traditions of the Joseon Dynasty's government offices. While many of the original buildings were dismantled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era, the Main Gate of Imyeongggwan Guesthouse remained intact, serving as a key reference for restoration efforts. As one of the few remaining structures from the Goryeo Dynasty, it is recognized as a valuable piece of Korea's cultural heritage.

For GIAF25, the Gangneung-daedohobu Government Office is being transformed into an exhibition space. As the festival bridges centuries-old history with contemporary art, providing visitors with a new perspective on the intersection of tradition and innovation ; it will once again reinforce the site's enduring cultural and artistic significance

윤석남(b.1939)은 한국 여성주의 미술의 개척자로, 한국 사회에서 여성의 삶과 현실을 담은 작품을 통해 예술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마흔이 넘어서 독학으로 그림을 시작한 윤석남은 1982년 첫 개인전을 개최한 이후 40여 년간 꾸준히 활동해오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어머니와 모성에 관한 자전적 이야기를 작업의 뿌리로 삼았으며, 이후 정체성, 생명과 돌봄, 자연, 여성사로 주제를 확장해 나갔습니다. 최근에는 역사 속 여성을 재해석하는 작업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인전으로 2023년 제23회 이인성미술상 수상자전 《윤석남》, 《동시대 아시아 작가들의 표현 - 윤석남 특별전시》(도쿠시마현립미술관, 일본, 2016), 《SeMA Green: 윤석남-심장》(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 본관, 2015) 등이 있으며, 주요 단체전으로는 《내게 다정한 사람》(인천아트플랫폼, 2024), 《신/여성의 탄생》(자하미술관, 2023), 제3회 제주비엔날레《움직이는 달, 다가는 땅》(제주도립미술관, 2022), 《덕수궁 프로젝트 2021: 상상의 정원》(국립현대미술관, 2021) 등이 있습니다. 주요 수상 경력으로는 제8회 이종섭 미술상(1996), 국무총리상(1997), 제29회 김세중 조각상(2015), 국민훈장 모란장(2019), 제23회 이인성 미술상(2022) 등이 있습니다.

A pioneer of feminist art in Korea, YUN Suknam (b. 1939) has spent over four decades creating works that illuminate the realities of women's lives in society. She taught herself how to paint in her forties, and has been a key figure in contemporary art since her first solo exhibition in 1982. YUN's early works were deeply autobiographical, exploring themes of motherhood and personal history through reflections on her mother's life. Over time, her artistic scope expanded to include identity, life, nature, and women's rights, continuously redefining how women are represented in art. In recent years, she has been immersed in reinterpreting historical female figures in her works. YUN's major awards include the 8th Lee Joong-sup Award (1996), the Prime Minister Prize (1997), the 29th Kim Se-choong Sculpture Award (2015), the Order Of Civil Merit Moran Medal (2019), and the 23rd LEEINSUNG Art Prize (2022). Her major solo exhibitions include the 23rd LEEINSUNG Art Prize Recipient Exhibition Yun Suknam (2023), *Women of Resistance, Becoming Historic* (Hakojae Gallery, 2021), *Expressions of Contemporary Asian Artist - Special Exhibition by Yun Suknam* (Tokushima Prefectural Museum, Japan, 2016), and *SeMA Green: Yun Suknam - HEART* (Seoul Museum of Art, 2015). Her major group exhibitions include *The Friendliest* (Incheon Art Platform, 2024), *The birth of a new woman* (Zaha Museum, 2023), *Jeju Biennale 2022 Flowing Moon, Embracing Land* (Jeju Museum, Jeju, 2022), and *Deoksugung Project 2021: Garden of Imagination*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2021).

홍이현숙(b.1958)은 일상적 수행과 수련을 통해 추상을 탐구하며, 인간 중심의 존재로부터 탈중심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냄새, 소리, 진동 등의 감각을 넘어서 인간과 비인간의 경계를 초월한 공감각적 장소를 만들고자 하며, 결국 인간과 비인간이 함께 존재하고 넘나드는 공간을 목격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대학에서는 조각을 전공했지만, 영상 설치, 퍼포먼스, 사진 등 다양한 미디어를 활용해 작업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인전으로 《12m 아래, 종들의 스펙타클》(코리아나 미술관, 2022), 《횡, 추-푸》(아르코미술관, 2021), 《한낮의 승가사》(공간 일리, 2019), 《폐경의례》(북합문화공간 에무, 2012) 등이 있습니다. 주요 단체전으로는 2024 타이틀 매치: 홍이현숙 vs. 염지혜 《돌과 밤》(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 2024), 2024 부산비엔날레 《어둠에서 보기》(부산현대미술관, 2024), 《접속하는 몸: 아시아 여성 미술가들》(국립현대미술관, 2024), 제14회 광주비엔날레 《물처럼 부드럽고 여러계》(무각사, 2023), 제1회 강릉국제아트페스티벌 《강/릉/연/구》(2022)(서부시장 예집, 2022) 등이 있습니다.

Hong Lee Hyunsook (b.1958) explores abstraction through daily practice and training, aiming to decenter the human-centric existence. By transcending sensory experiences, including smell, sound, and vibration, she seeks to create a multisensory space where humans and non-humans coexist and interact. Having majored in sculpture, Hong Lee works across various media, including video installation, performance, and photography.

Hong Lee's major solo exhibitions include *At 12m below the ground level, Spectacle of Species* (Coreana Museum of Art, 2022), *Swoosh, Tsu-pu!* (Arko Art Center, 2021), *Midday Seungga Temple* (space illi, 2019), and *Menopause Ceremony Project* (emu Artspace, 2012). Her major group exhibitions include *2024 Title Match: Hong Lee, Hyunsook vs. Ji Hye Yeom: Fold the Time with the Ground* (Buk-Seoul Museum of Art, 2024), the *Busan Biennale 2024 Seeing in the Dark* (Busan Museum of Contemporary Art, 2024), *Connecting Bodies - Asian Women Artists*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2024), and the *14th Gwangju Biennale, soft and weak like water* (Mugak Temple, 2023). She also participated in the *Gangneung International Art Festival 2022 (GIAF22) Tale of a City* (Seobu Market Yejip, 2022).

흐라이르 사르키시안(b.1973)은 GIAF25를 통해 한국에 최초로 소개되는 작가입니다. 작가는 다마스쿠스에 있는 아버지의 사진 스튜디오에서 사진에 대한 기본을 익혔으며, 이는 작가의 시각과 작업 전반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사르키시안의 사진 작업은 '탐구'라는 요소와 가시성/비가시성의 이분법이 특징입니다. 이러한 접근은 개인적인 기억과 배경에 대한 해답을 찾는 과정과 연결됩니다. 작가는 작품을 통해 역사에서 다루지 않거나 다룰 수 없는 이야기들을 탐색하며, 인간의 존재가 느껴지지만 모습은 보이지 않는 황량한 풍경과 장소를 자주 포착합니다. 가시성과 비가시성의 대비를 통해 관람객이 표면 뒤에 숨겨진 더 깊은 의미를 이해하고 더 큰 역사적 또는 사회적 서사를 재평가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그의 작업의 핵심입니다.

주요 개인전으로 올버햄프턴 미술관(2025), 덴마크 코펜하겐의 사진뮤지엄(2024), 마스트리흐트의 보네판텐 미술관(2022), 샤르자 파운데이션(2021), 포트워스 현대미술관(2020), 그리고 카리스페치아 파운데이션(2015) 등이 있습니다. 최근 참여한 주요 단체전으로는 《영국 미술전9》(2022, 위트워스 미술관, 런던), 《메아리의 방을 떠나며》(2019, 제14회 샤르자 비엔날레), 수르속 미술관, 임페리얼 전쟁 박물관, 발틱 현대미술관, 제10회 바마코 아프리카 사진 비엔날레, 제56회 베니스 비엔날레 아르메니아관(황금사자상 수상), 테이트 모던, 뉴 뮤지엄, 그리고 모리 미술관 등의 전시에 참여했습니다. 현재 작가는 베이루트에 있는 아랍 이미지 재단의 자문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Hrair Sarkissian (b.1973) is making his Korean debut through GIAF25. His artistic journey began in his father's photography studio in Damascus, where he developed photographic skills that continued to influence his creative work. Sarkissian's photography can be defined by the element of 'observation' and the binary concept of visibility and invisibility. He uses the medium as a means of seeking answers to personal and collective histories.

At the heart of his work is a profound engagement with overlooked or unspoken narratives. His images often depict desolate landscapes and vacant locations, spaces where the traces of human presence linger despite their absence. By capturing these contrasting and contradicting subjects, he invites the audience to look beyond what is immediately visible, unraveling the deeper, often obscured layers of historical and social realities.

Sarkissian is also a member of the Advisory Board of the Arab Image Foundation in Beirut, contributing to the preservation and study of photographic archives in the region.

Sarkissian's major solo exhibitions include Wolverhampton Art Gallery (2025), Fotografisk Center, Copenhagen (2024), Bonnefanten Museum, Maastricht (2022), Sharjah Art Foundation (2021), The Modern Art Museum of Fort Worth (2020), Fondazione CariSpezia (2015). Selected recent exhibitions include British Art Show 9, the 14th Sharjah Biennial, Sursock Museum, Imperial War Museum, the Baltic Contemporary Art Centre, the 10th Bamako Encounters African Biennial of Photography, the Armenian Pavilion at the 56th Venice Biennial (awarded the Golden Lion), Tate Modern, the New Museum, and Mori Art Museum. Sarkissian sits on the Advisory Board of the Arab Image Foundation in Beirut.

안민옥(b.1991)은 GIAF25의 강원지역 기반 작가 공모를 통해 선정된 작가입니다. 2020년 벨기에에서 귀국한 후, 전국의 35개 정자에 관한 책 『홀로 선 자들의 역사』를 계기로 강원도에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2021년 정선군 고한읍에서 '강원꿈다락토요문화학교'에 참여한 이래 고성군을 포함한 여러 지역으로 작업 범위를 확장했으며, 강원도로 이주해 활동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작가는 주변 환경에서 포착한 다양한 소리를 통해 서로 다른 존재와의 관계를 탐구하는 사운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최근 지역 주민들의 경험과 사소한 이야기 등을 모아 지역민의 삶을 더욱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는 작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개인전으로 《Day After Day》(다이버 서울 갤러리, 2022), 《네가 불일을 보는 동안에》(n0dine Gallery, 벨기에, 2021)가 있으며, 주요 단체전으로는 《향하는 귀, 흐르는 걸음, 벌어진 사고》(보틀팩토리, 홍제천일대&미학관, 2024), 《알로록 달로록》(고양시립 아람미술관, 2023), 《그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 움직임》(신촌문화발전소, 2023) 등이 있습니다.

Minok AN (b. 1991) was selected through GIAF25's open call for artists based in the Gangwon region. Having spent an extended period living abroad, AN returned to Korea from Belgium in 2020, and began working in Gangwon-do, inspired by the book *History of Those Who Stand Alone*, which explores 35 traditional pavilions across the nation.

In 2021, AN participated in the Gangwon-Kkumdarak Saturday Culture School in Gohan-eup, Jeongseon-gun, later expanding her practice to Goseong-gun while planning a full relocation to Gangwon-do. Her work is deeply rooted in local experiences, focusing on the daily lives, histories, and environments of the communities she engages with.

AN's works consists of sound projects that examine and seek to capture the interwoven connection between lifeforms within collected sounds. Most recently, AN has been working on her new project that involves documenting mundane stories and escapades by interviewing local residents to highlight specific aspects of life in the region.

AN's major solo exhibitions include *Day After Day* (dive.seoul Gallery, 2022), and *While You Are Going About Your Business* (n0dine Gallery, Belgium, 2021). Her major group exhibitions include *The Heading Ear, The Flowing Step, The Unfolded Thought* (Bottle Factory, Hongjecheon area & Philosopher's Stone, 2024), *Alorok Dalorok* (Goyang Aram Municipal Museum of Art, 2023), and *THEM MOVES THAT DON'T NEED* (Shinchon Art Space, Seoul, 2023).

옛 함외과의원은 일제강점기 시절(1942년) 강릉에서 설립된 최초의 병원 중 하나로, 당시 의료 불모지였던 강원도 지역에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이 병원은 함태원 원장이 설립한 것으로, 그는 강릉 지역의 의료와 교육 발전에 크게 기여한 인물로 평가받습니다. 그의 헌신은 강원도 지역 의료계에도 이어져, 강원도의사회 출범 당시 회원으로 참여하며 지역 의료 환경 개선에 힘썼습니다. 이처럼 함외과의원은 단순한 병원이 아니라 강릉과 강원도 지역 사회의 건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한 역사적인 공간입니다.

이번 페스티벌은 강릉시의 협조를 받아 이 공간을 페스티벌의 주요 전시 공간으로 활용합니다. 이 공간에서는 함외과의원의 역사적 역할을 바탕으로 현대 예술을 통해 '치유'라는 개념을 다각적으로 선보입니다.

One of Gangneung's earliest medical institutions, Hahm's Surgical Clinic was established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era to address the severe shortage of healthcare facilities in Gangwon-do. Founded by Dr. Hahm Taewon, a pioneering figure in Gangneung's medical and educational development, the clinic played a crucial role in improving regional healthcare. As a founding member of the Gangwon State Medical Association, Dr. Hahm was dedicated to enhancing medical infrastructure and expanding access to healthcare across the province. More than just a medical facility, Hahm's Surgical Clinic became a historic site, deeply embedded in Gangneung's social and cultural fabric. Recognizing its historical significance, the City of Gangneung later acquired the building as part of an urban renewal project. Today, it has been transformed into one of the key venues for this festival.

Drawing inspiration from its medical legacy, the exhibition at Former Hahm's Surgical Clinic explores the concept of healing through the lens of contemporary art.

이해민선(b.1977)은 도시의 지도를 생명체처럼 그리는 작업을 시작으로, 황량한 사물과 풍경을 담아내는 작가입니다. 2000년대 이후로는 취약한 인간이 '자신의 세계'를 만들어가는 이유에 대해 깊이 생각하며, 사물을 섬세하게 관찰하는 회화 작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작품 제목 〈바깥〉, 〈덩어리〉, 〈유추의 강〉 등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회 현실과 변화 속에서도 개인으로서 살아가는 자신의 삶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해민선은 작고 위태롭지만 끈질기게 생존하는, 연약하면서도 강한 존재로서 개인의 문제를 다루며, 회화를 통해 자신의 생각과 성찰을 탐구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인전으로 《디코이》(페리지 갤러리, 서울, 2021), 《야외》(갤러리 소소, 헤이리, 2018), 《덩어리》(플레이스 막, 서울, 2017), 《살갗의 무게》(합정지구, 서울, 2015) 등이 있으며, 주요 단체전으로는 《Nostalgics on realities》(타데우스로팍 서울, 2024), 《불타는 집》(에스터 쉬퍼, 서울, 2024), 《대전과학예술비엔날레 너희가 곧 신임을 모르느냐》(대전시립미술관, 대전, 2024), 《누구의 숲, 누구의 세계》(대구미술관, 대구, 2023), 《중근당예술지상》(세종문화회관 미술관, 서울, 2023), 《철-인》(F1963, 부산, 2018), 《강원국제비엔날레: 악의 사전》(녹색체험도시센터, 강릉, 2018), 《B컷 드로잉》(금호미술관, 서울, 2017), 《서울 바벨》(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 본관, 서울, 2016) 등이 있습니다.

Leehaiminsun (b. 1977) began her work by drawing cities' maps as if they were living creatures and has since focused on depicting desolate objects and landscapes. Since 2000s, reflecting on why vulnerable individuals start to create "their own worlds," she has presented paintings by carefully observing objects. As shown in the titles of her works, such as *Outside, the mass*, and *River of Inference*, she symbolically expresses her life as an individual, navigating social realities and changes. Leehaiminsun examines the complexities of individuals as fragile yet resilient beings, surviving precariously but persistently, and explores her thoughts and reflections through her paintings.

Leehaiminsun's major solo exhibitions include *Decoy* (Perigee Gallery, Seoul, 2021), *Outdoors* (Gallery Soso, Heyri, 2018), *the mass* (place MAK, Seoul, 2017), and *The weight of the Skin* (Hapjungjigoo, Seoul, 2015). Her major group exhibitions include *Nostalgics on realities* (Thaddaeus Ropac Seoul, 2024), *House on Fire* (Esther Schipper, Seoul, 2024), the Daejeon Art and Science Biennale 2024 *MAGNUM OPUS* (Daejeon Museum of Art, Daejeon, 2024), *Whose Forest, Whose World* (Daegu Art Museum, Daegu, 2023), *Chongkundang Yesuljisang* (Sejong Museum of Art, Seoul, 2023), *Iron-Human* (F1963, Busan, 2018), the Gangwon International Biennale 2018 *The Dictionary of Evil* (Gangneung Green City Experience Center, Gangneung, 2018), *B-Cut Drawing* (Kumho Museum of Art, Seoul, 2017), and *Seoul Babel* (Seoul Museum of Art, Seoul, 2016).

키와림은 GIAF25의 강원 지역 기반 작가 공모를 통해 선정된 팀으로, 김기훈(b.1990)과 김들림(b.1990)의 이름을 결합해 만든 컬렉티브입니다. 김기훈은 사진가이자 비디오 매체 작가로,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균열을 발견하고 그 원인과 대처 방법을 질문하는 작업을 합니다. 김들림은 개인적 경험에서 비롯된 일상적 소재를 주제로 퍼포먼스와 설치 작업을 진행하며, 내레이션, 소리, 비디오, 오브제, 이미지, 태피스트리 등 다양한 매체를 사용합니다. 키와림은 10년 이상 일상과 예술을 함께하며, 각자의 영감과 상상력, 자유와 창조성을 공유했습니다. 그들의 작업은 주거 공간에서 시작된 일상적 주제를 다루며, 예술과 삶의 통합을 지향합니다. 이들은 예술의 특권화와 신비화에 반대하며, 현실 속에 존재하는 예술과 일상 그 자체를 추구합니다.

주요 개인전으로 《행동하는! 파동~ 그리고》(칠성조선소, 2024), 《128 Flux 깊은 심심함: 해엄치기》(ART SPACE 128, 2023)가 있으며, 주요 단체전으로는 《bac 24 속초아트페어》(칠성조선소, 2024), 《바람에 맞서서》(2023 초도항 아트페스타, 2023), 《고성군 지역작가 그룹전》(진부령 미술관, 2023), 《피움 레지던시 재불작가 7인전》(스퀘어루트 갤러리, 2022), 《힘-Hee:m》(HEAR, 스트라스부르, 프랑스, 2021), 《Des-Collages》(Le Séchoir, 몰하우스, 프랑스, 2021)가 있습니다.

Selected through GIAF25's open call for artists in the Gangwon region, Kiwalim is a collaborative duo composed of KIM Gihoon (b. 1990) and KIM Dlelim (b. 1990). The name Kiwalim is a portmanteau of two syllables from each of the artists' names.

KIM Gihoon, a photographer and video media artist, explores the fractures within everyday life, questioning their origins while seeking ways to address and reinterpret them. Meanwhile, Dlelim creates performances and installations based on everyday subjects drawn from personal experiences; using narration, sound, video, objects, images, tapestries, and other mediums to transform ordinary moments into layered artistic expressions.

For over a decade, Kiwalim has shared not only their artistic journey but also their daily lives, exchanging ideas, inspirations, and the freedom of creation. Their work focuses on everyday subjects that could be found in our living spaces, blurring the line between art and life. Rejecting the elitism and mystification of art, Kiwalim instead pursues a practice that is rooted in reality, making art accessible and integrated into the rhythms of daily existence.

Their major solo exhibitions include *Acting! Waves~ And Then*, (Chilsung Shipyard, 2024), *128 Flux, Deep Boredom: Swimming* (ART SPACE 128, 2023). Their major group exhibitions include *bac 24 Sokcho Art Fair* (Chilsung Shipyard, 2024), *Against the Wind* (2023 Chodo Port Art Festa, 2023), *Goseong Regional Artists Group Exhibition* (Museum Jinburyeong, 2023), *Pium Residency Group Exhibition of Seven Korean Artists in France* (Square Root Gallery, 2022), *Hee:m* (HEAR, Strasbourg, France, 2021) and *Des-Collages* (Le Séchoir, Mulhouse, France, 2021).

창포다리는 강릉단오제의 주요 행사 장소로, 국가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강릉단오제와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릉 남대천을 가로지르는 이 다리는 단오장과 연결되어 있어, 축제 기간 동안 많은 방문객이 오가는 중심 통로 역할을 합니다. 창포다리라는 이름은 강릉단오제의 전통에서 유래했습니다. 창포는 예로부터 잡귀를 쫓고 건강을 기원하는 상징적인 식물로 여겨졌으며, 강릉단오제의 의식과 전통 속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이번 페스티벌에서는 창포다리에서도 작품이 전시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이곳에서 관람객은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예술과 마주하며 새로운 시각적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창포다리는 강릉의 역사와 현대 예술이 만나는 특별한 공간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Changpo Bridge in Gangneung has deep cultural and historical significance as one of the main venues of the Gangneung Danoje Festival. Since Gangneung Danoje Festival was designated as a National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he bridge has become a central site that attracts thousands of visitors annually. Spanning the Namdaecheon River, it serves as a crucial link to Danojang, the festival's main event venue, allowing participants to cross and fully immerse themselves in the festivities.

The name Changpo Bridge is intrinsically tied to the rituals and traditions of Gangneung Danoje Festival. The changpo (sweet flag) plant has long been believed to ward off evil spirits and promote health, playing a significant role in the festival's spiritual and ceremonial practices. In honor of this symbolism, the bridge was named Changpo Bridge, and it remains a key site for major Gangneung Danoje Festival rituals and events.

As a historic venue of Gangneung Danoje Festival, Changpo Bridge now takes on a new role in contemporary artistic expression. At GIAF25, the bridge becomes an en plein air exhibition space, bringing art to the public offering visitors a unique visual experience in the open air.

※ 강릉역에 이어 창포다리에서도 김재현 작가의 작업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김재현 작가의 소개는 p.29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You can encounter artist KIM JAE HYEON's work at Changpo Bridge.

Please refer to page 29 for the introduction of artist KIM JAE HYEON.

강릉단오제보존회 소개

강릉단오제보존회는 강릉단오제의 보존과 전승을 위해 설립된 단체입니다. 전수 교육, 문화예술 연구와 보존, 콘텐츠 개발, 국내외 교류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지역 문화 발전에 힘쓰고 있습니다. 2009년 강원도 전문 예술 법인으로 등록되며 전통 보존뿐 아니라 창작 공연 단체로도 성장했습니다. 조직은 제례부, 무격부, 관노가면부로 나뉘며, 세 명의 예능 보유자와 전수 교육 조교들이 활동 중입니다. 강릉단오제보존회는 전통을 지키는 동시에 현대적 창작을 통해 지역 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Gangneung Danoje Festival Conservation Association

The Gangneung Danoje Festival Conservation Association was established to conserve, sustain, and pass down the rich traditions of the Gangneung Danoje Festival. Dedicated to fostering local culture and heritage, the association undertakes a variety of initiatives, including successor training, cultural research, artistic conservation, content development, as well as bo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cultural exchanges.

Registered as a Corporation Specialized in Arts since 2009, the association has evolved into both a guardian of tradition and a creative performance organization. The association is divided into three divisions: the Ritual division, the Shamanic Ritual division, and the Gwanno Mask division. With three holders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assistant instructors actively participating, the association remains committed to honoring tradition while integrating contemporary artistic expressions, ensuring that the cultural significance of Danoje continues to thrive in modern times.

강릉단오제전수교육관

강릉단오제전수교육관은 강릉단오제의 보존과 전승, 그리고 상시적인 관람을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시설은 본관과 공연동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본관은 전시 공간과 전수교육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오 홍보 전시관에서는 강릉단오제의 전 과정을 전시하여 역사와 전통을 알리는 상설 전시가 이루어지며, 전수교육 공간은 강릉단오제보존회의 전수인 육성과 전승 보존을 위한 교육 활동에 활용됩니다. 공연동은 지역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한 주요 공연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Gangneung Dano Culture Center

Established as a dedicated space for the preservation and promotion of the Gangneung Danoje Festival, the Gangneung Dano Culture Center offers educational programs, exhibitions, and performances that bring the festival's history and traditions to life for visitors.

The center consists of two main structures: the Main Building and the Performance Building. The Main Building houses the Dano Exhibition Hall, which presents a permanent exhibition showcasing the entire process of the Gangneung Danoje Festival. This building also includes a successor training hall, where future generations receive instruction from masters affiliated with the Gangneung Danoje Festival Conservation Association, ensuring the continuation of this living heritage. The Performance Building serves as a vibrant venue for traditional and contemporary performances, playing a crucial role in expanding and promoting local culture and the arts.

1957년에 준공된 이곳은 과거 여관으로 사용되던 옛 한옥을 개조한 공간입니다.

당시 여관이 일곱 칸으로 이루어져 있었기에 한동안 '7커피'라는 이름의 카페로 운영되었습니다.

이번 페스티벌을 맞아 '일곱칸짜리 여관'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은 이 공간은 과거의 정취를

간직하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을 더해 관람객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이번 페스티벌에서는 과거와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일곱칸짜리 여관에서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작가와의 워크숍 및 작품 전시가 진행됩니다. 이 공간은 전통과 현대의 경계를 허물어 새로운 예술적

경험을 제공합니다.

Originally built in 1957, Seven-Roomed Yeogwan is a beautifully preserved hanok (traditional Korean house) that has undergone multiple transformations over the decades. Once an inn with seven rooms, it was later repurposed as a coffee shop named "7 Coffee." Now, for GIAF25, it has been reimagined as "Seven-Roomed Yeogwan," blending heritage and modernity to offer visitors a distinctive cultural experience in Gangneung.

As part of this festival, Seven-Roomed Yeogwan serves as a venue for interactive, citizen-driven programs led by participating artists. The space also hosts an exhibition of contemporary artworks, inviting visitors to engage with art in a historic yet modern atmosphere.

서다솜(b.1984)은 일상 속 수고로움과 정성이 깃든 행위, 특히 손으로 하는 일의 가치를 시각화합니다. 작가는 개인을 둘러싼 여러 순간이 모여 만드는 삶의 과정과 형태를 관찰하고, 다양한 현상을 현재 삶에 대입해 그 안에서 포착한 내용을 작업으로 풀어냅니다. 요리와 바느질을 주요 조형 언어로 활용하는 작가는 흙 작업, 글쓰기, 디자인 등 매체를 넘나드는 프로젝트 중심의 예술 실험을 전개합니다.

주요 개인전으로는 《실례합니다, 이 근처에 혹시 꽃집 있나요?》(예술지구_p, 2021), 《살기, 먹기, 자기》(갤러리 헤움, 2022) 등이 있으며, 주요 단체전으로는 광주비엔날레 5.18 베니스 특별전시 《꽃 핀 쪽으로》(Spazio Berlendis, 베니스, 이탈리아, 2022) 등이 있습니다. 2019년도부터 요리를 매개로 하는 프로젝트 《Practice makes Practice》를 지속하며 다양한 연계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워크숍으로는 <달이 지고 바다가 남을 때>(STUDIO Practice Makes Practice, 2024), <포슬포슬 복실복실 키라키라 포카포카>(The Willow 1955, 2023), <삶, 잠, 밥>(갤러리 헤움, 2022) 등이 있습니다.

SUH Dasom (b. 1984) explores the value of effort, care, and handcraft in everyday life, bringing attention to the significance of manual labor and traditional craftsmanship in a rapidly evolving society.

Her work reflects a deep engagement with social phenomena and historical narratives, which she seamlessly weaves into contemporary life. The artist's primary forms of expression integrate cooking, sewing, and other hands-on practices. SUH creates project-based artistic experiments that blur the boundaries between art, daily rituals, and communal experiences while continuously uncovering new ways to reinterpret the mundane.

SUH's major solo exhibitions include *Excuse Me, Is There a Flower Shop Around Here?* (Art District_p, 2021) and *Living, Eating, Sleeping* (Gallery Hyeyum, 2022). The artist's major group exhibitions include the Gwangju Biennale's May 18th Venice Special Exhibition *To Where the Flowers are Blooming* (Spazio Berlendis, Venice, Italy, 2022). Additionally, the recent workshops conducted include, *When the moon sets and the sea remains* (STUDIO Practice Makes Practice, 2024), *Fluffy Fluffy Bling Bling* (The Willow 1955, 2023), and *Life, Meal, Sleep* (Gallery Hyeyum, 2022).

작은공연장 단 Small Theater Dan

작은공연장 단은 1958년에 준공된 교회 건물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회로 사용되던 이 건물은 2010년대에 강릉시가 매입해 작은 공연장으로 탈바꿈했으며, 1958년 준공을 기념하는 표지석이 남아 있어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현재 이 공간은 음악, 연극 등 다양한 공연이 펼쳐지는 복합문화 공간으로, 문화예술인과 시민이 함께 공연을 기획하고 무대에 직접 설 수 있는 소통의 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술과 사람을 연결하는 이 특별한 공간은 최대 100석(가변 좌석) 규모의 아담한 무대를 통해 관객들이 실험적이거나 대중적인 공연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즐길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특성 덕분에 작은공연장 단은 부담 없이 찾아와 감동을 나눌 수 있는 시민의 문화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번 페스티벌에서는 작가의 퍼포먼스가 펼쳐지고, 시민 참여 워크숍과 작품 전시도 함께 진행되어 공간의 의미와 역할을 확장합니다.

Originally built in 1958 as Gangneung's first church, Small Theater Dan is a historic venue that has been repurposed into a vibrant cultural space. Acquired by the City of Gangneung in the 2010s, the building still retains a stone marker commemorating its original construction, serves as a modern cultural heritage site.

Today, Small Theater Dan operates as a cultural complex, hosting an array of music, theater, and experimental performances. Unlike conventional venues, it is a place where artists and local residents actively collaborate, engaging in the co-creation of performances and shared artistic experiences. Featuring a small stage and an adjustable seating capacity of up to 100, the theater offers an immersive and personal connection between performers and audiences. As part of GIAF25, Small Theater Dan presents a curated selection including performances, workshops and works by participating artist Yanghee Lee. This initiative transforms the venue into a space of artistic imagination, delivering emotional depth and creative resonance to the audience.

이양희(b.1976)는 공연예술의 언어를 다루는 예술가로, 일시적인 극장을 만들거나 전시의 형태로 작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유년기부터 오랜 기간 한국 전통 무용을 연마해 온 작가는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 한국에 부흥했던 언더그라운드 클럽 문화를 주체적으로 향유했습니다. 이러한 자기 몸의 역사를 기반으로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고착된 한국 춤의 영역을 새로이 인식하고자 합니다. 한국 전통 무용의 형태, 형식의 제약, 소멸한 무형과 변질된 원형의 경계를 탐구하고 나아가 작가 고유 원형을 진취적으로 확립하는 작업을 지속합니다. 최근 무엇보다도 구분 짓지 않은 '춤' 자체를 구성하는 신체, 쾌락, 형식을 작업의 주제로 다루며 영상 및 퍼포먼스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작가는 <림보 프로젝트 퍼포밍 아트랩>을 통해 공연 예술의 성질, 태도, 요소를 수평적으로 조명하며 공연 예술의 가치, 소유, 향유에 대해 질문을 워크숍의 형식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뉴욕 라이브아츠(2011)와 무브먼트 리서치(2014-2016)의 상주 예술가와 아시아문화위원회(Asian Cultural Council)의 펠로십(2016)에 선정된 바 있으며, 대표작으로는 《쉬머링》, 《어피셔나도》, 《트웍스트》, 《트위그》, 《헤도니스트》, 《헤일》, 《게잡트쿤스트벨크》, 《더스크》, 《언란: 형식과 상투》 등이 있습니다.

주요 개인전으로 《축과 발》(더퍼미지갤러리, 2024), 《IN》(휘슬, 2024), 《헤일》(d/p, 2020) 등이 있으며 주요 그룹전으로는 《어둠 속에서 보기》(부산 비엔날레, 2024), 《빅브라더 블록체인》(백남준아트센터, 2024), 《극장 Post Media and Site》(부산시립미술관, 2023), 《삶의 풍경: 오늘도 안녕하세요》(울산시립미술관, 2023), 《play, pause, repeat》(보안여관, 2023), 《살 돌 기름》(WESS, 2022), 1920 기억극장《황금광시대》(일민미술관, 2020) 등이 있습니다.

Yanghee Lee (b. 1976) is an artist who works at the intersection of performance, theater, and exhibition spaces; using the language of performing arts to create temporary theaters and immersive experiences. Her practice is deeply rooted in traditional Korean dance, which she has trained in since childhood, yet she also draws inspiration from the underground club culture of Korea in the late 1990s and early 2000s.

By intertwining these seemingly disparate influences, Lee reframes Korean dance beyond the rigid confines of "tradition", challenging its formal restrictions and deteriorated archetypes. Her work examines the ephemeral and immaterial nature of the body's movement, seeking to redefine dance as an open-ended act rather than a fixed form.

Recently, Lee has centered her work around the body, pleasure, and form, using dance as a fluid and undefined medium expressed through video and performance. With the *Limbo Project Performing Art Lab*, she investigates the attitude, value, and ownership of performing arts, questioning who defines and controls artistic expression. Her workshops and performances take a horizontal manner, emphasizing shared experiences and collective exploration.

Lee was selected as an artist-in-residence at New York Live Arts (2011), Movement Research (2014-2016) and received a fellowship from the Asian Cultural Council (2016). Her major works include *Shimmering*, *Aficionado*, *Twixt*, *Twig*, *Hedonist*, *Hail*, *Gesamtkunstwerk*, *Dusk*, and *Unlearn: Form and Cliché*. Lee's major solo exhibitions include *Axis and Feet* (The Page Gallery, 2024), *IN* (Whistle, 2024), and *Hail* (d/p, 2020). Her major group exhibitions include the Busan Biennale 2024 *Seeing in the Dark* (Busan Museum of Contemporary Art, 2024), *Big Brother Blockchain* (Nam June Paik Art Center, 2024), *Theater Post Media and Site* (Busan Museum of Art, 2023), *Landscape of Life: How Are You Today?* (Ulsan Art Museum, 2023), *play, pause, repeat* (Artspace Boan, 2023), *Flesh Stone Oil* (WESS, 2022), and *1920 Memory Theater The Gold Rush* (Ilmin Museum of Art, 2020).

비영리단체 강릉시네마떼끄가 운영하는 강릉독립예술극장 신영은 2012년 개관한 강원도 유일의 독립·예술영화 전용관으로, 1960년대부터 이어져 온 '신영극장'의 명맥을 잇고 있습니다. 1999년부터 정동진독립영화제를 개최·운영하며 독립영화 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강연, 소모임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강릉시민들이 영화를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4K 디지털 상영이 가능한 영사 시설과 휠체어석을 포함한 총 111석의 관람 환경을 제공하며, 극장 로비에는 오래된 영화잡지와 서적, 대여 가능한 DVD를 구비하고 있습니다. 제2회 강릉국제아트페스티벌(GIAF23)에서는 프란시스 알리스의 작품을 선보여 관람객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으며,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이번 페스티벌에서는 호추니엔의 작품을 선보입니다. 이처럼 강릉독립예술극장 신영은 국내외 예술가들의 작품을 소개하며, 강릉시민들에게 다양한 예술적 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stablished in 2012, Sinyeong Theater stands as Gangwon-do's only dedicated cinemathèque, exclusively showcasing independent and art films. The venue carries forward the legacy of the former Sinyeong Theater, a historic cinema that connected Gangneung's citizens with film culture for over 11 years since the 1960s.

The cinema has been operated by Gangneung Cinemathèque, a non-profit private organization, which also founded the Jeongdongjin Independent Film Festival in 1999. Cinemathèque screens both Korean independent films and international art films, including curated films by renowned directors such as Charlie Chaplin, Alfred Hitchcock, and more. It also provides Gangneung citizens with opportunities to explore and interpret films through diverse programs, including lectures and small gatherings.

Equipped with a 4K digital projection system and 111 seats, including wheelchair-accessible seating, the theater ensures an immersive cinematic experience while maintaining an intimate and community-focused atmosphere.

Following the success of GIAF23, where the cinema presented the works of Francis Alÿs to great acclaim, GIAF25 now features the works of Ho Tzu Nyen at Sinyeong Theater. Through these exhibitions, Sinyeong Theater continues to expand its role beyond traditional cinema, bridging film, visual art, and contemporary storytelling. Offering Gangneung's citizens diverse and enriching artistic experiences.

호추니엔(b.1976)은 동서양의 다양한 문화적 참조, 예술사, 연극, 영화, 음악, 철학 등 폭넓은 요소를 작품에 담아냅니다. 작가는 신화적 서사와 역사적 사실을 융합하여 역사, 기록, 전승에 대한 다양한 이해를 탐구하며, 작업의 주된 주제는 동남아시아의 다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장기적인 연구입니다. 작가는 동남아시아를 언어, 종교, 문화, 외부 영향 면에서 매우 다양한 지역으로 바라보고, 이를 단순한 지리적 구역이나 기본적 역사적 토대로 설명할 수 없는 복합적인 공간으로 인식하며, 이러한 관점을 작품 속 다양한 지식 체계, 서사, 표현 방식에 반영합니다. 작가의 작업은 다큐멘터리적 연구에서 판타지까지 아우르며, 아카이브 이미지, 애니메이션, 영화를 활용해 몰입적이고 극적인 설치 작품을 선보입니다. 주요 개인전으로 헤셀 미술관(2024), 아트선재센터(2024), 도쿄 현대미술관(2024), 싱가포르 아트 뮤지엄(2023), 해머 미술관(2022), 도요타 시립 미술관(2021), 크로우 아시아 미술관(2021), 야마구치 예술미디어센터(YCAM, 2021), 에디트-루스 미디어 아트 하우스(올덴부르크, 2019), 함부르크 쿤스트페어라인(2018), 밍 현대미술관(McAM, 상하이, 2018), 아시아 아트 아카이브(2017), 구겐하임 빌바오(2015), 모리 미술관(2012), 서브스테이션(싱가포르, 2003) 등에서 열렸습니다. 그는 제54회 베니스 비엔날레(2011)에서 싱가포르 국가관 작가로 참여한 바 있습니다.

Blending myth, history, and cultural philosophy, Ho Tzu Nyen (b. 1976) creates immersive, multi-layered works that explore the complexities of Southeast Asian identity. Drawing from Eastern and Western cultural references, his practice is deeply rooted in art history, theater, cinema, music, and philosophy; crafting narratives which question how history is written, interpreted, and transmitted. At the heart of Ho's work is an ongoing investigation into Southeast Asia's cultural plurality—a region so diverse in languages, religions, and influences that it defies any single historical or geographical definition. From documentary research to fantasy, his work combines archival images, animation and film in installations that are often immersive and theatrical.

With a distinctive approach that fuses research with spectacle, Ho Tzu Nyen continues to shape contemporary conversations around history, memory, and cultural hybridity, offering viewers a new way to engage with the past and its lingering echoes in the present.

Ho's major solo exhibitions have been held at the Hessel Museum of Art (2024), Art Sonje Center (2024), Museum of Contemporary Art Tokyo (2024), Singapore Art Museum (2023), Hammer Museum (2022), Toyota Municipal Museum of Art (2021), Crow Museum of Asian Arts (2021), Yamaguchi Center for Arts and Media [YCAM] (2021), Edith-Russ-Haus for Media Art (Oldenburg, 2019), Kunstverein in Hamburg (2018), Ming Contemporary Art Museum [McAM] (Shanghai, 2018), Asia Art Archive (2017), Guggenheim Bilbao (2015), Mori Art Museum, (2012), The Substation (Singapore, 2003). He represented the Singapore Pavilion at the 54th Venice Biennale (2011).

강릉국제아트페스티벌 공모 프로그램

The Open Call of the Gangneung International Art Festival

(재)파마리서치문화재단은 문화예술 나눔을 통한 가치를 창출하고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2022년 제1회 강릉국제아트페스티벌(GIAF22) 《강/릉/연/구》와 2023년 제2회 강릉국제아트페스티벌(GIAF23) 《서유록》을 개최하며 강원도 강릉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작가를 발굴, 지원하는 공모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제3회 강릉국제아트페스티벌 공모에 지원한 50명의 작가 중 1차 작품 포트폴리오 및 서류 심사와 2차 인터뷰 심사를 거쳐 총 3명(팀)의 작가를 선정했습니다. 최종 선정 작가 김재현, 안민옥, 키와림이 제3회 강릉국제아트페스티벌(GIAF25) 《에시자, 오시자》에 참여합니다.

Since its inception, the Gangneung International Art Festival (GIAF) has been dedicated to fostering cultural exchange and artistic engagement within Gangneung and the greater Gangwon-do region. Organized by the PharmaResearch Culture Foundation, the festival debuted with GIAF22, *Tale of a City* in 2022 followed by GIAF23, *Tale of a City II* in 2023, with the goal of enriching local artistic discourse and community involvement.

In preparation for the third Gangneung International Art Festival (GIAF25), "*Esiza, Osiza*", the foundation once again launched an open call, inviting artists actively working in Gangneung and Gangwon-do to apply. The selection process consisted of the first round with a document screening evaluation based on submitted portfolios followed by a second round of evaluation through in depth interviews to assess the artists' visions and potential contributions. Out of fifty applicants, a total of three teams (or individuals) were selected to participate in GIAF25: KIM JAE HYEON, Minok AN, and Kiwalim.

공모 선정작가

제3회 강릉국제아트페스티벌 《에시자, 오시자》(2025)	김재현, 안민옥, 키와림
제2회 강릉국제아트페스티벌 《서유록》(2023)	송신규, 임호경
제1회 강릉국제아트페스티벌 《강/릉/연/구》(2022)	박연후, 배철, 수임, 정순호

※ 제4회 강릉국제아트페스티벌(GIAF27) 공모 일정은 2026년 3월 파마리서치문화재단 웹사이트 공지사항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Selected Artists

Gangneung International Art Festival 2025 <i>Esiza, Osiza</i> (GIAF25)	KIM JAE HYEON, Minok AN, Kiwalim
Gangneung International Art Festival 2023 <i>Tale of a City II</i> (GIAF23)	SONG SHIN-KYU, Im Hokyoung
Gangneung International Art Festival 2022 <i>Tale of a City</i> (GIAF22)	Bak Yeon hu, Bae Cheol, SOO YIM, Soonho Jeong

※ Please refer to the PharmaResearch Culture Foundation website on March 2026 for information regarding the Fourth Gangneung International Art Festival (GIAF27) open call.

(재)파마리서치문화재단(이사장 박필현)은 글로벌 바이오기업 (주)파마리서치*가 2018년에 설립한 비영리 재단으로, '재생'이라는 기업의 핵심 가치를 바탕으로 사회 공헌과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지속 가능한 가치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재단은 강릉을 중심으로 한 문화예술 행사를 통해 지역 커뮤니티와 소통하며, 전시와 창작의 경험을 공유하는 강릉국제아트페스티벌을 기획했습니다. 이처럼 파마리서치문화재단은 강릉의 문화예술 인프라를 강화하며, 강릉이 세계적인 문화-예술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지역과 세계를 연결하는 문화적 가교로서 강릉의 생동하는 미래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Established in 2018, the PharmaResearch Culture Foundation (Chairman Pilhyun Park) is a non-profit organization founded by the global biotech company PharmaResearch Co., Ltd.*. Grounded in its parent company's core value of 'regeneration,' the foundation is dedicated to enriching society through cultural and artistic contributions.

Based in Gangneung, it fosters connection through art and culture, collaborating with local communities and hosting events such as the Gangneung International Art Festival to inspire creativity and engagement. Looking to the future, the foundation aspires to help transform Gangneung into a global art hub, bridging its centuries-old cultural heritage with the world.

* (주)파마리서치는 재생의학을 연구하는 제약-바이오 기업으로, 건강한 아름다움을 위한 토털 에스데틱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독자적인 DOT®(DNA Optimizing Technology) 기술을 바탕으로, 안면부 주름 개선 목적의 의료기기 '리쥬란', 프리미엄 더마코스메틱 '리쥬란 코스메틱' 등을 개발하며 피부 항노화를 위한 연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 PharmaResearch Co., Ltd. is a pharmaceutical and biotechnology company specializing in regenerative medicine, offering total aesthetic solutions for staying healthy and beautiful. Based on its exclusive technology, DOT® (DNA Optimizing Technology), the company has developed products such as "REJURAN®," a medical device for improving facial wrinkles, and "REJURAN® Cosmetic," a premium dermacosmetic line, continuing its research in skin anti-aging.

제3회 강릉국제아트페스티벌

가이드북

Gangneung International Art Festival 2025

GUIDE BOOK

총괄 편집

박소희

편집

홍수진, 홍해준, 양지울, 김시연

편집 지원

김은영, 김명희

번역

김윤재, 박설희

교정교열

김윤재(영문), 백아영(국문)

도움주신 분

김운석(강릉단오제 무격부 전승교육사)

염지훈((사)강릉바우길 팀장)

강원지방기상청

디자인

어떤디자인스튜디오

후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르떼뮤지엄 강릉

(주)파마리서치

Chief Editor

Sohee Park

Editor

Hong Sujin, Haejun Hong, Jiwool Yang, Shunny Kim

Editorial Assistant

Eunyoung Kim, MyungHee Kim

Translation

Jay Kim, Park Seolhee

Proofreading and Editing

Jay Kim (English), Ahyoung Baek (Korean)

Collaborators

Kim WoonSeok (Instructor for Successor Training of the Gangneung Danoje Festival)

Yeom Jeehoon (Manager of Gangneung Baugil Association (Inc.))

Gangwon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Design

Uhttun Design Studio

Sponsors

Arts Council Korea

ARTE MUSEUM GANGNEUNG

PharmaResearch Co., Ltd.

에시자, 오시자

‘에시자 오시자’는 강릉단오굿에서 악사(양중)가 바라지*를 할 때, 무악연주와 함께 연행하는 구음으로 집단적 에너지를 고조시키는 역할과 동시에 굿의 흐름을 조율하며 장단 변화를 신호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에시자 오시자’라는 구음은 ‘하늘과 땅 위의 모든 존재를 초대한다’라는 뜻을 가진 사실로 해석될 수도 있으며 의미 없는 구음으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 페스티벌에서는 구음이 가지고 있는 ‘초대’의 현대적 의미를 확장하여 페스티벌 참여자, 협력자, 관람객 간의 교감을 증진하고, 서로 다른 리듬이 조화를 이루는 장을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바라지: 순우리말로 옆에서 돕는다는 뜻한다. 악사는 무가의 춤의 반주, 각종 의식음악을 연주하고, 무당이 무가를 부를 때 주입새를 넣거나 바라지를 하거나 노래를 주고받는 교환창을 한다.

Esiza, Osiza

"Esiza, Osiza" is a vocal chant, which can be interpreted as "inviting all beings of heaven and earth", used in *Gangneung Dano Gut* by musicians (*yangjung*) when performing *baraji*". It serves to fill the gaps that instrumental accompaniment alone cannot cover, amplifying the collective energy of the ritual. This chant plays a crucial role in regulating the flow of the *gut* (shamanistic ritual) to fulfill its religious function.

At GIAF25, the phrase *"Esiza, Osiza"* represents hospitality, engagement, and new perspectives. It captures the festival's spirit: an inclusive space where diverse rhythms—whether human, natural, or mythical—intertwine.

* *Baraji*: is a Korean word meaning "to support from the side." In traditional music, musicians provide accompaniment for the ritual dance, play ceremonial music, and engage in *chuimsae* (vocal exclamations), *baraji*, or *gyohwanchang* (alternating call-and-response singing with shamans).

발행일 Publishing Date

2025. 02. 20.

발행 Publisher

(재)파마리서치문화재단

PharmaResearch Culture Foundation

E-mail. prcf@pharmaresearch.co.kr

Website. <http://giartfestival.com>

<https://culture.pharmaresearch.kr>

Instagram. @prcf.official

© 2025 (재)파마리서치문화재단

© 2025 PharmaResearch Culture Foundation

후원 Sponsored by



협력 Partners

